하나님께

더

가까이

청장년을
위한 **찬양집회**

- 시편 73편
- **정유성** 목사 (덴버한인북부장로교회 담임)
- **9월 20일 수요일, 9월 21일 목요일**

1. 오후 8시 수요일 저녁 집회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73:28)
2. 오전 6시 목요일 새벽 집회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 (창 37:18-20)
3. 오후 8시 목요일 저녁 집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라" (마7:13-14)

아가페 묵상

무엇 vs 누구

#가르침 #오직 #예수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교육, 봉사, 찬양, 선교 등 그것이 제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그것들 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요한복음 15장 5절 -

월간 아가페 제402호 · 2017년 9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718) 358-7789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퀸즈장로교회

9월 교육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mɜ

단기선교 특집
온두라스 실버 / 아리조나 인디언보호구역
중국 / 에디오피아 / 인도

단기선교 이슈 | 안경 사역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들
인도 영화 '블랙'을 통해본 기독교 교육의 가치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교육위원장 홍한나 권사

교육의 달 특집
기억에 남는 선생님 / 학생들을 생각하며
나의 교사 이야기 / 신앙 안에서의 자녀 교육

2017 9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모든 것이 공짜라고 천국은 아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직원의 초청으로 구글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글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의 먹는 것과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초청해 준 직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구글 직원으로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영자들과 어떤 일에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런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자기 공부나 비지니스를 위해 그만 두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또 물었습니다.
"이곳에 예배가 있나요?"
"매주 한 번씩, 크리스천들의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스트가 오셔서
특강할 땐 많이 모이지만 우리끼리 모일 때는 아주 적게 모이죠."

모든 음식과 편의 시설이 공짜인 것에 놀랐고, 경영의 투명성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역시 구글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람과 일에 대한 관심은 극진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두에게 결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Just because it's free it does not make it heaven

I was once able to visit the Google headquarters through the invitation of a Google employee.
In it were many restaurants and cafés run by google.
There were also various kinds of facilities for its employees.
And the employees, as well as their invited guests, were able enjoy all these things for free.

I asked the employee who invited me,
"What are you most proud of working as a Google employee?"
He said,
"I am most proud of our employer, who allows me to do the work that I want to do and who supports me beyond my requests.
I am also proud of our multi-ethnic co-workers who are willing to help me with a sincere heart. "

I asked once again,
"Are there people who quit this job?"
He said,
"Of course. People quit for their studies or for their own businesses. Also, there are people who quit because of stress."

I asked yet again,
"Is there a worship service here?"
He said,
"There is. Once a week, there is a meeting for bible study and prayer. Many people gather when a famous guest speaker comes, but only a few gather when we gather by ourselves."

I was impressed and even surprised by Google in many ways – that all the restaurants and facilities in it were free, and at its transparency in business. But, obviously, despite how good it is, Google could not be heaven, because, despite its diversity and interests in business, worship to God wa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compared to these other things.

不是所有都是免费的就是天堂

因着认识一位在google工作的职员，曾受邀参观了在google公司。
在那里有google公司运营的食堂和咖啡馆，还有其他多样化的配套设施。
对于公司员工这一切都是免费提供，当然也包括公司员工邀请的朋友这些服务也都是免费开放的。
我问了邀请我的那位职员一个问题，“作为google公司一员, 你认为最骄傲的是什么？”。
他回答说：“可以自由的去做我想做的事情，对于各种申请给予慷慨回应的领导层， 无论任何事情都给予真心的不同民族的同事们，是让我感到最骄傲的”。
我又提出了一个问题，“是否也有人放弃这样的职场呢？”。
他说：“当然有了，有些为了学习要继续深造，有些因为自己的生意原由，也有些人是因为压力太大而放弃”。
借着我又提出了另一个问题，“这里有敬拜吗？”他说：“每周一次基督徒们会聚在一起查经和祷告。
更多的人聚集会是因为有著名的讲员来的时候， 我们自己就不是特别频繁的相聚”。
对于提供的免费食物感到惊叹，被经营管理透明化所感动。然而google依然无法成为”天堂“是因为，就算拥有多样化的民族聚集在一起工作，但是他们没有把敬拜神放在最重要的位置上。这就是为什么再好的公司像google一样无法成为天堂的原因。

Царство Небесное- это не когда, все бесплатно

Я был в компании "Гугл",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их сотрудника.
Внутри их здания, много разных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И много разных мест отдыха.
Для всех сотрудников и тех, кто туда приглашен, вся еда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ст отдыха, все бесплатно.

Я спросил у сотруднка, который меня пригласил: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для тебя, в этой компании? Чем ты гордишся, более всего?"
"Тем, что я могу делать здесь, все что я хочу. Все что мне нужно, будет м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но и оказанна помощь, менеджерами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ть в так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е, для меня важнее всего"

Я спросил еще:
"Если люди, которые уходят с такой работы?"
"Конечно же есть. Кто то уходит чтобы дальше учиться или нач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есть и такие, кто уходят из-за стресса"

Я спросил еще:
"Есть ли здесь богослужени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здесь есть христианские изучения Библии и молитвенные собрания. Когда приходят знаменитые гости, собирается много. Когда мы сами, то нас не много"

Я был удивлен, что все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бесплатны. Был впечатлен прозрачностью их управления.
Но я понял, все равно, "Гугл"- это не Царство Небесное. Потому что хоть, там люди из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и все нацелены на работу, но богослужение Богу, не есть ценное для них.

아가페
제402호
2017.9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Summer music camp가 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클라식 악기의 기초반과 기초반 Advance와 아이노스 1,2와 G2G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날(25일) Music Camp를 마친 오후 7시에는 Concert가 있었습니다. 먼저 G2G가 외부 초청으로 오신 이선경 지휘자의 지휘로 6곡의 노래를 불렀고, 퀸장의 Youth Orchestra인 Ainos 1은 지휘자 Boris Salgado의 지휘로 Brahms, Marcello, Strauss, Mozart의 곡들을 연주했으며, 이단비 선생님의 오보에 학생들이 나와 Amazing Grace, 최동현 선생님의 클라리넷 학생들이 나와 If I come to Jesus, 김나영 선생님의 플룻 학생들이 Joyful, joyful, we adore Thee, 김미언, 오재혁, 김현우, Ann Kim선생님의 바이올린 학생들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Sharon Kim선생님의 첼로 학생들이 Twinkle twinkle little star를 연주했으며, Ainos 2 Orchestra는 오재혁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Mussorgsky와 Vivaldi의 곡을 연주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강지영전도사님, 이정훈집사님, 채현주권사님, 김정윤 집사님, 주봉순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신앙시론 | **모든 것이 공짜라고 천국은 아니다.** 김성국 목사
5 꿀 같은 말씀 |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 김성국 목사
7 2017년 7월,8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편집부

단기선교 특집

8 **온두라스 실버** | 주님께 무용으로 영광 돌리자 송경순 권사
|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편춘자 권사
9 | 거룩한 부담 심의례 전도사
10 | 작은 씨앗 되길 기도합니다 조목환 권사
| 은혜 위에 은혜러라 황은애 권사
11 단신 | 캄보디아에 울려 퍼진 색소폰 찬양 정민영 집사
12 **아리조나 인디언보호구역** | 노아의 방주 스킷 후에 보여주신 무지개 김혜련 청년
14 | 아리조나 단기선교 스케치 편집부
15 **중국** | 하나님의 자녀 1억 명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첸유지 전도사
16 | 희생하는 교회 차평화 전도사
17 **에디오피아** | Pastors Conferences in India & Ethiopia Pastor Peter Kim
19 | Ethiopia Missions 2017 Recap Pastor Kiwi Jin
20 | Testimonies Elizabeth Shim / Jay Jeong
21 **인도** | Towards the Villages, Cities & All Four Corners of India Deacon jonathan Hong
22 단신 | 퀸장 기네스북/ 캄보디아 단기선교 미용부분 편집부
23 **선교지에서의 전도폭발** | 한국어에서 스페니쉬 전폭으로 조승희 집사
24 | Little Angels on the Mountain Brandon Cho
25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미국 원주민 여름선교를 마치고 아리조나 나바호 이영호 선교사
26 |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들 온두라스 이동철 선교사
27 **단기선교 이슈** | 안경사역 -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들고 선교지로 편집부
28 | 첫 탄생 - 실버 단기선교 소은자 권사
29 영화 **[블랙 Black]**을 통해 본 기독교 교육의 가치 편집부
32 소유영 전도사의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교육위원장 홍한나 권사** 소유영 전도사

교육의 달 -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

34 **기억에 남는 선생님** | 굿잡! 도장 쾅쾅! 김지현집사
| Thank you, 채영주 선생님 and Erin Teacher QPEM Esther Park
| 나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 내가 닮고 싶은 선생님 박소정 청년
35 단신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배달되는 손편지 편집부
36 **학생들을 생각하며** | 아기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나의 일주일 영아부 교사 / 조나영 권사
| 하나님 사랑에 매여 초등부 교사 / 이나 청년
| 사춘기를 함께하는 엄마 교사 중등부 교사 / 정소연 집사
| 어떻게 매 주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직분 고등부 교사 / 김태훈 청년
38 단신 | 우리집 가훈과 얽힌 이야기 "경천애인" 최효진 권사
39 **신앙 안에서의 자녀교육** | 주님이 하셨어요 조정숙 집사
| 4남매를 주님의 은혜로 키웠습니다 옥선자 권사
단신 | 찬양대 지휘자들과 함께한 찬양대 부장단 8월 모임 편집부
40 **중국어 교회학교 교사 소개** 손요한 전도사
41 2017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 **엄마의 초청 연수** 안지연 선생
42 Food in Bible 2 | **꿀 Honey** 최성은집사
45 **청년대학부 수련회** | Who do you say that I am? 편집부
8,9월 교회 소식 정리 정민영 집사
46 십자말 **성경퀴즈** 김기호 장로
47 2017년 6월 **새가족 안내** 편집부
47 **나만의 레시피** 냉모밀 샐러드 김미견 권사

2017년 8월 20일 출애굽기 1:1-22

- 설교 전문 -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

오늘 주일부터는 출애굽기를 강해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고 40주에 걸쳐 강해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되었습니다.
1장-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
20장-40장: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율법과 성막을 주심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구원, 율법, 성막 등의 큰 주제가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상징과 사건들이 많이 있어 흥미진진한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총리로 있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애굽 땅에 올 때에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맨 처음 이주해온 사람들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 1:12a)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학대를 받았고 어떻게 그 학대 속에서 더욱 번성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오늘 이 이민 땅에서 많은 고통이 있다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1. 어떤 학대를 받았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 괴롭게 하였습니다.
(출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 1:9)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 1: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출 1:11a)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애굽의 새 왕은 사탄을 예표합니다.
사탄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가까운 자들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줍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을 가장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 2: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 2: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합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출 1:11b)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출 1:13)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출 1:14)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사탄은 일을 통해 우리를 학대합니다.
사실 일은 축복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일의 목적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출 1:11b)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일생동안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비돔과 라암셋 같이 엉뚱한 것을 짓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탄이 일의 현장에서 심어주는 것은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이란 강압적인 힘에 억눌려 자기 주체성 없이 눈치만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노예근성을 가진 자는 더욱 고상하고 위대한 꿈을 꾸거나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노예근성을 가진 자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자에게 지나치게 비굴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자에겐 군림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근성을 심어주어 학대하였습니다.
이 노예근성을 심어주는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먹혀 출애굽하여 자유의 행진을 하면서도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이므로 학대하였습니다.
(출 1: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출 1:16)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성경은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히 2:14b)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학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 어떻게 더욱 번성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출 1: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 1:12a)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출 1:20b)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떻게 학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 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 46: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46: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어려운 땅, 거기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려운 "거기서"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거기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일과 축복을 펼치셨습니다. 거기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를 예표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골고다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십자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저 하늘 천국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한 경건한 찬송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또 다른 찬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 줍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235장 1,3절)

어려운 때는 번성의 때입니다.
(행 8:1b)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8: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에 암 수술을 받은 교우가 계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식은 암이 여러 곳에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암 수술을 크게 하려고 몸을 길게 째고 열어보니 전이 되었다던 곳은 다 깨끗하고 예상했던 것 보다 아주 짧은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우는 건강할 때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심방을 갔을 때도 마음이 닫혀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여러 달을 지내는 동안 그는 세상에 미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너무 부요해 졌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 고통의 현실이 있는 곳에 준비시키셨다가 번성의 일에 참여시킵니다.
(출 1: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 1: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려울 때 산파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독자와 같이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파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시어 풍성한 자유를 주십니다.
(히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 2: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 2: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삶의 현실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삶을 힘 있게 살아갑시다.

2017년 7월 30일 민수기 20:2–5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산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중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1. 후회
1000명이 훨씬 넘는 암 환자들을 떠나보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 박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들은 단어가 후회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 두려움
어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며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광야라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불평
이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기준을 물질에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소유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지 맙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맙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없음에 대한 불평으로 살지 맙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로 삽시다.

2017년 8월 6일 열왕기상 17:1–7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는 모든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 시내가 마른 것일까요?

1. 예언
예언에는 진짜 예언이 있고 가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이며,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망상으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2. 분노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습니다, 나를 끌고 지옥에 갈 무게가 있습니다.

3. 회개
시내가 마르게 된 데에는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라버린 시내를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계속하니 시내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시내가 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내가 마르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시내가 흐르는 것은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여 시내가 흐르는 삶을 삽시다.

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

맛있게 드세요	Masikke Duseyo	맛있게 드세요
I hope you enjoy it.	aɪ houp jə m|dʒɔɪ ɪt	아이호-퓨인조-잇
请慢用	qǐngmànyòng	칭만융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Priyatnogo appetita	쁘리얏나바 아뻬띠따

온두라스 선교지 어린이들과 함께

주님께 무용으로 영광 돌리자

송경순 권사

10년 전부터 단기선교의 꿈을 안고 해마다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 대원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단기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017년 실버 단기선교팀을 모집 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이 들어 신청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듯 하여 정장로님께 연락을 하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단기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스페니쉬로 복음제시도 공부하고, 그레이스 무용단으로 황은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열악한 온두라스 선교지에 천막교회라도 없으면 뙤약볕이고 흙바닥이면 어떠하리~ "어라 둥둥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세" ~ 주님께 영광 돌리자.

선교지 첫 주일예배를 현지인교회에서 드렸는데, 정말 뜨겁고 성령충만한 예배였습니다. 현지인교회에서 첫 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음날은 본격적으로 실버팀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실버팀 각자가 준비한 안경, 네일아트사역을 하는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황은애 권사님과 복음제시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이 설교도 하셨고 무용 팀은 3일간 무용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고전 춤을 현지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던지요.

실버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편춘자 권사

퀸즈장로교회 창립이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장영춘 목사님의 단기선교 사역을 이어서 김성국 목사님의 많은 단기 선교팀 사역이 있었으나 금년에 새로이 실버단기선교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5세 이상의 나이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원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허락하셨으며 10명이 한 그룹이 되어 5주에 걸쳐 안경사역을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4,5년에 걸쳐 공부하는 것을 시니어가 짧은 기간에 배우려니 머리에서 쥐가 날 지경인데 거기에 더하여 스페니시 언어까지 외워야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운 공부를 시키나 했더니, 실버팀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분 한분에게 열정과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

으신 뜻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된 자로 사역지로 떠날 때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온두라스 현지 선교지에 도착하여 이동철선교사님 안내로 개척하신 선교지를 향했습니다. 선교지는 1,350피트의 높은 산꼭대기의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두메산골 험악한 곳에 사람이 살까'하는데 어디에서 몰려오는지 어른과 아이들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경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밝혀주니 그 기뻐하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쁘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는 한명 한명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확신시키며 함께 하나님께 맡기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레이스 무용 맴버 두 분이 할렐루야 찬양 무용으로 그들을 흥겹게 해주며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네일 사역은 다섯 색깔로 예쁘게 손톱을 발라주었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져간 선물을 나누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선교지역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들은 다음 사역지에서는 더 확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쳤고 피곤함을 못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날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10명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어 끝까지 모든 사역을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성국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의 기도소리가 메아리쳐 우리에게 들려와 힘을 내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부담

심의례 전도사

퀸장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버 단기 선교팀을 만들었다고 해외선교 부장이신 정길표 장로님이 저에게 실버팀을 인솔 하고 온두라스 선교를 가라고 하신다.

실버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정 장로님께 물어보니, 실버팀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방문도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오라한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선교지에 가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의 부담이 되어, 전도폭발, 안경 사역, 네일 아트, 부채춤등을 준비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실버팀 10명이 7월 22일 밤 10시경에 온두라스 이동철 선교사님 선교지에 도착했다.

다음날이 주일날이라 현지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2시간 30분정도 드렸다. 어린 아이와 젊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3,4대가 한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한국의 50, 60년 대 시골 교회예배를 연상케 했다.

다음날 월요일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했는데, 복음제시, 안경 사역, 네일아트, 부채춤 사역이 매일 이어졌다. 박식성 집사님과 나는 네일 아트를 했는데, 젊은 여자들이 많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아 물도 마실 시간이 없었다. 네일아트가 끝나면 메니큐어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메니큐어 받으려고 젊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50년대 미국의 선교사들이 시골 교회와 성당에 와서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고, 옥수수 가루도 받아 죽을 만들어 먹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좋아하던 그때를 생각하니, 조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감격에 가슴이 찡 했다.

온두라스는 낙후된 나라요 범죄율이 최고로 많은 나라다. 그리고 도로와 산골은 한국의 60년대와 같이 비포장도로, 큰길이라 할지라도 2차선 도로 밖에 없었다.

실버 선교팀은 매일 아침 6시에 아침기도, 저녁 7시는 선교사님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마지막 날 예배에는 선교현장에서의 실버 선교팀 각자의 간증의 시간도 가졌다.

처음 시작한 실버선교라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기도 하면서 준비했는데, 실버 선교팀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실버 단기선교팀이 여러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작은 씨앗 되길 기도합니다

조목환 권사

할렐루야!

이번 실버 단기선교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퀸즈장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배우면 둘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택하여 쓰시겠다는 주님의 뜻 인줄 믿고 저는 부족하지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퀸장에서 35년을 영의 양식을 먹고 살면서 단기선교 한번 못 가고 “나만 배불리 먹고 살았나”하는 생각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온두라스는 너무 덥고 물도 석회 물이고 많은 것이 부족한 나라더군요, 현지 교회는 고바우 위에,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듯한 곳에 위치하였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하였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무사히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동철선교사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안경사역, 네일 사역, 부채춤과 찬양 그리고 복음제시 등을 그곳 형제들과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비하여 선교사님과 그곳 형제들의 환경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아끼고 감사하며 선교에 힘쓰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실버팀이 건강히 잘 선교를 감당하고 오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 작은 움직임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 그곳에 예수님 사랑의 복음이 싹트고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온두라스가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러라

황은애 권사

오래전부터 선교의 꿈은 가졌지만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노년이 되어 교회가 특별히 실버 단기 선교를 모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례 전도사님을 리더로 10명 선교팀이 기도로 하나되고 사랑으로 하나되어 기도훈련, 안 경사역 훈련, 전도폭발 훈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홍정택 집사님의 지도로 스페니쉬로도 전폭훈련을 받았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선교 떠나는 날, 주봉순권사님과 몇 분의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맛난 점심을 먹고 힘 얻어 교회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출발하였습니다. 정길표장로님과 최시몽집사님께서 공항까지 운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짐 하나하나까지 다 부쳐주셔서 우리는 평안하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5분 뉴왁 공항에서 출발하여 온두라스에 밤 9시[뉴욕시간 밤11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동철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오셨고 우리는 떨리는 가슴으로 처음 가는 선교지, 온두라스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순미사모님이 한국식 저녁식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온두라스의 첫 밤, 새벽에 어디에선가 ‘꼬꼬댁 꼬꼬’ 닭 우는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7월 23일 주일

6시에 기상해서 기도회를 마치고 현지인 원주민교회[이글레시아 부엔빠스또 선한좋은목자교회]에 가서 선교사님 내외분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특별 순서로 우리교회 선교무용단 2명이 갔으므로 우리나라 가락의 복음성가로 부채춤을 소개하였는데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무용도 소개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예배는 2시간이나 드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로 은혜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첫 사역지로 9시에 출발해서 뿌에노스 아리레스에 있는[이글레시아 이반 헬라아 에벤델리 교회] 산위로 1시간 30분이나 올라가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절벽이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였으며 산위에 도착하니 조그만 교회가 보였습니다.

이 더위에 이 산위에 누가 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안경사역을 위해 줄을 세워 기다리는 동안 전도폭발을 했습니다. 통역이 있다 했는데 선교사님 한분밖에 없어 난감했지만 스페니쉬 아는 몇 마디로 몸짓 손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많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천국의 선물

도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라비다 에땔나 엔 시엘로] 설명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산타바바라에 역시 산 위에 있는 이글레시아 펜타코스트 [오순절교회] 에서 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처음보다 더 차분히 안경, 네일, 전도폭발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잠깐 쉬면서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도넛을 먹으며 부채춤과 실버 선교단 모두가 특송 ‘예수사랑하심은’ 1절은 스페니쉬로 2절은 한국말로 찬양하였는데 율동까지 하므로 모두에게 축제의 분위가 되었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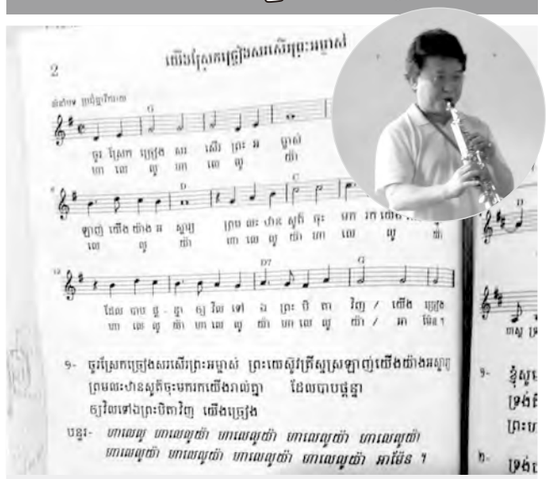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사니 시드로 교회는 산위 정상에 있는 교회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아서 조금은 시원하게 사역 할 수 있었습니다. 약 40여명이 와서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사역했으며 어린이들도 많이 와서 어린이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도 아기를 안은 아낙네와 노인들, 어린이들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선물도 한 아름[돋보기, 안경, 네일, 티셔츠, 선글라스, 쿠키와 캔디]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실버 단기선교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와 감동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두라스 사람들이 구원 받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 정길표장로님, 온두라스 선교사님, 퀸장 성도님들에게 실버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캄보디아에 울려 퍼진 색소폰 찬양 –

여응 쓰라엑 찌리응 써싸 쁘레아 엄므짜 ~!



킬링필드라 불리우는 1975년의 대학살로 인해 음악과 미술이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곳, 캄보디아에 울려퍼진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아름다운 울림과 교감을 준 것은 바로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단기선교 사역을 준비하던 윤원상 전도사님께서는색소폰으로 연주할 찬양곡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으로 구글과 유튜브에서 곡을 찾았답니다.

전통민요인 원곡의 가사는 “토요일, 토요일밤에, 나가서 놀자~~!” 라는 세상노래였지만 현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외워서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네요.

캄보디아 신학교 세미나 중간에 색소폰을 연주할 기회를 얻었지만 찬양곡들만 연주를 하고는 차마 신학생들 앞에서 세상노래를 연주해도 되나싶은 마음에 준비해간 곡을 연주하지 못하셨답니다.

세미나 둘째날, 강의 중간의 휴식시간에 한 귀퉁이에서 준비해간 곡을 소심한 마음으로 슬쩍 불어보는데 한 신학생이 다가와 환한 얼굴로 무어라 손짓발짓을 하더니 이내 뛰어나가서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랍니다. “토요일 토요일 밤에~~”라고 불리던 유명한 세상노래가 찬양곡으로 개사되어 “주 예수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찬송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감을 얻고 강단으로 나가서 준비한 곡을 연주하며 신학생들과 음악과 찬양으로 교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망설이며 연주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캄보디아 땅의 복음을 위해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노아의 방주 스킷 후에 보여주신 무지개 ”

김혜련 청년

준비

올해는 처음으로 여름단기선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끝남과 동시에 첫 선교 모임이 시작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장로님의 한마디에 전폭에서 배웠던 두 가지 진단질문을 조심스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준비는 말씀 읽기, 큐티, 신앙서적 읽기, 기도모임, 주일날 아이스커피와 떡볶이 판매, 선교 바자회로 이어졌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제가 한마음 축제 때,“핫 커피 원 달러”를 외치며 비 오는 공원을 헤집고 다니는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 국내로 떠나는 선교였지만, 팀원중 반 이상이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떠나는 선교이거나, 선교 경험이 부족하였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팀원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올해 떠나는 10개 선교팀 중에서 제일 약한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가 끝난 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았고, 구상하고, 지혜를 모아, 준비해갔습니다. 감사하게 출발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차츰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을 잔치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원주민 교회에 초청되어서, 인디안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청된 교회는 John WhiteRock 목사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섬기고 있는“Totalea Full Gasel Church”라고 하는 원주민 교회였습니다. John WhiteRock 목사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길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길가다 쉬고 싶으면 들어와서 쉬고 가라고, 일 년 365일 교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 하시고, 저희는 준비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중에 문뜩 떠나기 전 주일날 불렀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가 생각나서 울컥하는 마음에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소프라노 대원으로써의 실력발휘(??)는 제대로 못했지만, 은혜로운 시간 이였습니다. 예배 후 준비해간 한국식 음식으로 마을 분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은 불고기와 잡채, 호박 샐러드가 입맛에 맞는지, 모두들 맛있게 드셨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은 음식을 싸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음날부터 있을 어린이사역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회용접시로 액자를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일회용 접시에 여권사진 크기만 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평소에 어린이가 7~8명밖에 모이지 않아서 15개 정도면 충분할거라는 사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대로 될 찌어다 하면서 26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선교사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서 내일부터 픽업해야 할 아이들 집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잘못 찾아간 곳이란 걸 미처 몰랐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어린이 사역 첫째 날, 아침 일찍이 서둘러 교회로 나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라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을 보내주실까 은근 설렙니다. 그런데 픽업 간 팀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찾아간 건 아닐까? 길에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이들을 못 만난 건 아닐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 반 설렘 반… 먼저 도착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온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픽업 나갔던 밴이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십오 인승 밴에 빈자리하나 없이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어제 가서 만났던 아이 중 한명이 근처에 살고 있는 아이들 집을 안내해 주고, 친히 나서서 설명해주고, 초청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다 모이자 본격적인 우리의 어린이 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냥 와서 요란하게 떠들다 돌아가기보다는 성경구절 한 구절이라도, 성경 이야기 하나라도 똑바로 알려주고, 바른 믿음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선교사님의 조언대로, 하루에 성경구절 하나씩 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롬 6: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다들 열심히 따라 외우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그리고 팀원 12명이 함께 준비한 스킷 “노아의 방주” 1막을 선보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숨죽여가며 스킷을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짧은 간식 시간을 가지고 어제 준비한 일회용접시 액자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 많지도 적지도 않은 26명, 정확하신 하나님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 하실 수가??!! 더 많이 만들 걸 하는 후회도 살짝 듭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진 “영~차~”

오늘도 어린이 사역은 계속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걸까? 고개 너머에서 온 아이도 있고,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온 아이도 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를 데리고 온 21살 젊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총 31명이 모였습니다. 5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처음이라고, 선교사님이 놀라워하십니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신나는 어린이찬양에 맞춰 율동이 시작됩니다. 어제는 첫날이라 많이 쑥스러워 하던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따라 합니다. 오늘외울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4:6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조금은 길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오늘도 다 함께 외워봅니다. 어제 외웠던 로마서 말씀도 잊지 않고 복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킷 대신에, 준비한 “노아의 방주”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성경속이야기를 알아갑니다. 나이도 들쑥 날쑥이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줄다리기 제안이 있어서, 함께 교회 뒷뜰로 나갑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골고루 나누어 팀을 짜서, 줄다리기 시합을 해 봅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인지, 아직 요령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가르칩니다.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 함께 힘쓰는 거라고… 가르친 대로 아이들은 바로 따라 합니다. “영~~차~~, 영~~차~~”를 힘차게 외치며 힘을 모읍니다. 아무도 승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면서, 깔깔 웃으며, 한번 더 하자고, 조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대결을 겁 없이 제안해 오는 꼬마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광야 한 가운데서 복음으로 만난 우리가 “영~~차~~”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무지개

그런데 이틀 동안 우리가 픽업해 왔던 곳의 아이들이, 첫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지역 아이들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이 알려줬던 지역으로 가보려고 픽업 코스를 바꿔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에 데려가려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또 다른 한인 단기선교팀!! 그들도 삼일 전부터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고, 삼일 전부터 그곳에서 아이들을 픽업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 선교사님이 알려준 곳을 제대로 찾아갔다면, 그곳에서 두 사역팀이 몇명 안되는 아이들을 놓고 아이쟁탈전(??)이라도 벌일 뻔한 상황이였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픽업하러 간 동안, 남아있는 대원들은 일찍 온 아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외웠던 성경구절을 외워보기도 하고, 어제 선물로 나눠주었던, 성경 속 이야기책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고 수줍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들과 하루에 성경이야기 하나씩 읽기로 약속했다고, 정말로 하나만 읽었다고 천진하게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야기들에 흠뻑 취해, 30페이지 넘게 읽었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일단 관심을 갖고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픽업 나갔던 밴이 돌아오자 오늘도 찬양과 율동과 함께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밖에서 구경(??)만 하던 원주민 교회 목사님이 오늘은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이십니다. 찬양이 목사님도 춤추게 하신다??!! ㅋㅋㅋ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구절을 외워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은 보너스로 한 구절 더…창세기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스킷 “노아의 방주” 2막을 연출합니다. 발렌티어로 스킷에 함께 참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 무지개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스킷은 막을 내렸습니다. 스킷이 끝난 후, 나이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짧게나마 성경 공부를 하고, 어제 함께 만든 rainbow 티셔츠를 나눠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삼일 간 비록 짧았지만, 말은 안 통했지만, 정들었던, 아이들과 아쉽지만,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저녁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찾아간 중국집, 먼저 식사를 끝내고, 밖을 유심히 살피시던 집사님이 소리칩니다. “무지개다!!” 비가 내린 것도 아닌 하

늘에 무지개가 걸려있습니다. 그것도 쌍으로… 쌍무지개가~~~ 무지개를 보며 문득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십년 넘게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게 주인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았다고 덩달아 기뻐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아리조나팀의 여름 단기선교 사역은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 거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있는데, 함께 했던 46명의 어린이 명단이 카톡방에 뜹니다. 함께 했던 어린이 들이 1,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메세지와 함께…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면 인디안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조나 단기선교 스케치

편집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 피닉스 공항에서

지난 7월 21일(금)부터 29일(토)까지 애리조나 나바호 단기 선교팀의 사역이 있었다. 담당 사역자인 이소영 전도사 외 11명은 단기선교 가는 전날까지 그 곳에 가서 할 사역들 점검을 위해 모여서 사역을 위한 회의와 연습을 지난 두 달 넘게 계속해 왔다. 어떠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선교를 접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준비했다. 준비 과정 중에 멤버가 바뀌고 멤버 중 참석 못할 뻔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출발 당일이었던 7월 21일, 팀원들은 새벽 5시에 모여 교회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오전 8시 10분 피닉스 행 비행기에 오르고 약 5시간 정도 걸려 그 곳 시간 아침 10시 30분 쯤 피닉스에 도착했다. 우리는 미리 예약해 둔 15인승 밴을 픽업을 해서 짐을 싣고 튜바 시티로 향했다. 피닉스 및 애리조나 날씨는 뉴욕과는 다르게 습하지는 않지만 더우면서 날씨의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가는 동안 수십 번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가는 중간에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조금은 더 지체가 되었지만 무사히 튜바시티 소재한 이영호 선교사님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가 많이 크지 않은 관계로 여자 팀원 10명은 방 2개에 나눠서 생활하고, 남자 팀원 2명은 숙소 뒤 설치한 천막텐트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울러 야외 샤워 시설도 준비되어 있었다. 선교지를 몸소 체험(?)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실제로 이곳 나바호 사람들의 대부분의 집이나 교회는 물이 없고, 화장실 시스템도 옛날 한국에서 보던 그런 화장실이 존재하는 곳이다. 작년에 뉴멕시코 쪽 나바호 단기선교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7월 23일 주일, 우리가 VBS사역을 할 교회에 갔고, 예배를 드리며 3곡의 특송과 간증을 하였다. 우리는 다음날부터 있을 사역 홍보를 위해 식사 후 주변 마을로 나갔다. 1마일 여 떨어진 곳에 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는 집들이 많았다. 큰 소득 없이 숙소로 가서 월요일부터 있을 사역을 준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역사하고 계셨음을 사역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VBS사역 첫날인 7월 24일 월요일, David 형제와 나인애 권사님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바로 떠났고, 픽업 갔던 Van은 한 명이라도 더 픽업하기 위해 좀 늦어졌고, 그 밴을 보고 참석하기 위해 또 차량이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첫날 늦춰진 일정으로 계획했던 것들은 다 하지 못했지만, 준비했던 스킷 및 VBS 찬양 율동, 그리고 Polaroid로 찍은 개인 사진의 액자 작업을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액티비티로 이끌게 하였다.

사역 둘째날, 아이들 픽업이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첫째날 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VBS찬양 율동 때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첫째날 Noah's Ark 스킷에 이은 둘째날 비디오 상영이 이어졌고, Indoor, Outdoor 액티비티를 진행하였다. 평소 접하지 않은 게임들이라 생소했지만 즐겁게 즐기는 아이들이 많았다.

VBS 둘째날 사역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는 페이지에 있는 한 원주민 선교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하였다. 그곳에도 한인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하나의 귀한 모임을 경험하였다.

VBS사역 마지막 날인 26일 수요일, 이날 역시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에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마지막 날인 만큼, 전날 손수 제작한 티셔츠를 아이들 사이즈 별로 나누어 주었고 단체사진도 찍고, 각 나이 그룹별로 모여서 짧지만 그룹모임 다운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너무 부족한 시간에 아쉬울 따름이었다. 이날까지 참석한 아이들은 총 46명이었고, 마지막 날 참석한 아이들과 팀원들은 모두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동안 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역을 통하여 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하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며 짧은 일주일간의 이곳 선교일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 되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바호 민족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서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한다.

하나님의 자녀 1억 명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첸유지 전도사 陈玉捷传道

今年是第三年带着宣教的使命踏上中国这块让我魂牵梦绕的土地，对中国的宣教情从十多年前就开始萌生。自从2015年，上帝藉着教会的普世宣教异象带领我去到了中国，开始了中国宣教之旅。

中国之大，人口之众多，是福音急切需要的地方。慈爱的上帝不断地差遣祂的仆人使女前赴后继地前往中国，撒下了福音的血种。当中国拒绝福音时，当中国基督徒被杀时，西方宣教士殉道或被逐时，当清廷政府关闭福音大门时，上帝为何容许八国联军进攻中国？因为慈爱怜悯的上帝没有放弃中国，祂怜惜这神州大地上亿万个不能分辨左右手的灵魂。神藉着八国联军敲开了中国的大门，使福音再次地流入神州大地，流遍大江南北。上帝差遣祂忠心的仆人使女们不单止在平原城市中向汉族传福音，更进入到偏远的深山密林里，把福音传给不同的少数民族。

今日的中国约有一亿基督徒，很多的少数民族都信靠基督，其中苗族被称为基督教的苗族，因为诸多的苗人都信靠了基督。我们探访了彝族教会、傣族教会、苗族教会等，为到上帝奇妙伟大的作为，我们向祂献上深深的敬拜。这一切的一切，显明了神爱中国，耶稣在中国。主耶稣说，"我在那里，服事我的人也要在那里；"（约 12:26）。因此，我们何等的有幸，能在今生去到中国看看上帝在中国的作为，看到上帝藉着祂仆人使女们所结出的果子。

在上帝的国度里，神呼召不同的仆人使女在每一个不同的世代作祂要我们去作的工。目前中国的信徒约有一亿，但是传道人极其的短缺，很多教会没有牧者。在这些有限的牧者里面，很缺乏装备，真理的塑造。因此，中国普遍信徒真理的根基不深，容易被异端邪教迷惑，被世俗的潮流影响。我们韩中长老教会连续三年的中国宣教都是集中在牧者培训与主日学教师培训上。

今年的牧者和主日学老师都来自不同的省份，有些人坐了几十个小时的火车赶过来的。在牧者培训班里，他们不单渴慕得着神话语的装备，很多传道人都带着被复兴的心愿而来的。他们长期在经济压力、政府监管、同工矛盾、信徒困乏、自己灵里枯干等问题里服事，渐渐手开始下垂，腿开始发酸，心开始疲累，像以利亚一样。但是，他们聚集来到神的圣山上，他们同心寻求神的面，呼求主的名。在每一天早上的祷告会里，每次聚会的敬拜赞美里，每一堂课的话语交通里，都看到圣灵不断地动工；同工们被装备，被激励，被安慰，被鼓舞。神的话语成为他们黑夜中的亮光，成为他们疲乏里的力量。在最后的交通中，他们分享这次的培训，他们在主里得着很多，灵里再次得力。感谢赞美主！上帝在复兴中国的教会，成为末世的祝福培训结束后，我们去了很多不同的地方探访了几家城市教会，也探访了几家农村教会，在那里分享交通了上帝的话语，坚固信徒们的信心。特别是去深山里的少数民族教会，我深深的体会到上帝真的一个都不会落下。在这么偏远的深山里，耶稣没有忘记他们，福音已经传到他们那里去了。正如主所说的，一个牧人丢了一只羊，他会翻山越岭的去寻找这只迷失的羊羔，直到找着为止。直到找着为止，这就是神不放弃我们的爱，"祂既然爱世间属自己的人，就爱他们到底。"（约13:1）。神爱我们爱到底，永不放弃。感谢赞美主！

2017年的短宣结束了，但是我的心有时仍徘徊在那些中国传道人的身上，在那些偏僻的农村信徒身上。他们是上帝所爱的儿女，也是我亲爱的弟兄和姐妹。期待着明年的中国短宣，再次地踏上这块土地，把神的话语，上帝的祝福再次带到这块神州大地上。

올해로 3년 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간 중국은 내가 늘 항상 꿈에도 그리던 땅이었다. 중국의 선교의 열정은 10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그 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 하였습니다.

중국은 크고 인구는 많고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중국에 파송하였습니다. 복음의 피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복음을 거부할 때였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되었을 때 서방 선교사가 순교하거나 쫓겨 났을 때, 청 정부가 복음을 거절하고 대문을 닫을 때, 8개 연합군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왜 허용 했을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중국을 포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8개 연합군을 통해 중국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음이 다시한번 중국 땅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도시에 전파하고, 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하신 말씀처럼 많은 선교사는 자신을 거기에 헌신 하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많은 소수 민족이 기독교에 있으며, 그 중에 묘족은 기독교인이 많은 편입니다. 많이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본 이족교회, 때이교회, 묘족교회를 찾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 우리는 깊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중국에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요12:26)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 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중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고, 각 세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자들은 약 1 억 명이 있지만, 전도사가 극히 부족합니다. 많은 교회는 목사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진리의 장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보편적인 신도들의 진리는 뿌리가 깊지 않으며, 이

단의 사교에 미혹 되어 세속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중 장로교회에서 3년 간 계속 된 중국 선교는 주일학교 교사 트레이닝에 집중 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은 모두 다른 성에서 왔으며, 몇몇 사람들은 몇 십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목자 학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무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압력, 정부 감시, 동업 갈등, 신자 유무, 자신의 영이 메말라 있고, 문제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지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성산에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의 기도회에서 모임의 경배에 맞추어 각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끊임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장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밤중에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회를 부흥 하셨고, 말세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 우리는 여러 곳을 방문하여 몇 개의 도시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고, 신도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깊이 느끼게했습니다. 이렇게 외진 깊은 산 속에도 예수는 그들을 잊지 않고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어린양 하나를 찾기위해 그는 산재를 넘어서 잃어버린 새끼 양을 찾아 낼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영원히 포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2017년 단기선교는 끝났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중국에 있는 목자와 신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입니다. 저의 형제 자매들 입니다.

새해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이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생하는 교회

차평화 전도사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다시 단기 선교사로 6명의 멤버들과 함께 중국을 가게 되였습니다. 중국에는 선교가 불법이며 외국인이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고 또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 중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유난 지방에 있는 쿤밍이란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1주동안 목회자 세미나와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고 1주동안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사 세미나를 맡게 됐는데 함께 하신 선생님들은 26분이였고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첫 시간에는 복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열정과 환대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사실 우리보다 크리스찬으로서 더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을 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들과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신학 훈련 입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교사들 중에 구원에 확신 없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가고 싶은데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재대로 훈련 받을 기회가 없었고 교사들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초인 것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발표를 하고 밤늦게까지 1대 1로 대화를 하는 중에 울면서 10명의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됐습니다. 복음 발표를 하고나서 복음 전달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이고 두번째는 아이들 마음 안에 예수그리스도를 넣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졌고 그후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성경 해석, 성경공부 준비 과정, 주일학교 설립과 유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중국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설립하는 교회들도 있고 마을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주중과 주말에 일을해서 어른 예배에 집중을하고 아이들을 많이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에서 온 선생님께서 이 세미나를 통해 꼭 주일학교를 시작하겠다고 말을 할때에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주일 학교 시작과 관리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마음과 다른 선생님들과 만났던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희생을 느끼게 됐습니다. 중요한 일과 직장을 쉬고 세미나를 참석한 선생님들… 마을에 갔는데 마음을 열어 아주 귀한 음식을 준비하신 성도님들… 바쁘고 힘들어도 열심히 섬겼던 팀 멤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됐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는것을 보면서 감동하였습니다. 이번에 신학 훈련과 주일학교 사역을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중국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원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해야합니다.

KAPCQ Missions

Pastor Peter Kim
김도현 목사

- Pastors Conferences in India & Ethiopia -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 Matthew 28:19-20

The last words are always so very important in life. We remember the last words that people say, especially those who have influenced and touched our lives. I remember being by the bed-side of my late grandmother, as she was dying of cancer. I remember her last words that she shared with me in a letter, encouraging me to live my life for Jesus and for others. The last words are so important, not just to those who hear, but to the one who shares.

The last command that Jesus gave to His disciples was the Great Commission. Jesus calls upon all His disciple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and teaching them every-thing He commanded. The key imperative verb in this command is to MAKE disciples. All the other verbs in this passage (go, baptize and teach) fall under this main imperative verb, to MAKE disciples. Jesus calls us to be disciple-makers, not just His disciples.

As I prepared to lead the Pastors Conferences in India and Ethiopia, I knew from speaking with the missionaries, that the pastors in these countries lacked deeper theological training due to the lack of seminaries in these parts of the world. The Lord impressed upon my heart to lead the conference teaching on Jesus' last command that He gave to u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e ministry philosophy in India and Ethiopia is not very much different than what it is here in America. Mostly all the churches and leaders have a vision to reach the masses and the crowds through large gatherings, revivals and crusades. The emphasis is on numbers and attendance. The goal is to reach as many people with the Gospel as possible. Although this may seem to be a noble approach with sound intentions, what inevitably happens is that many people who respond to the Gospel through these crusades are left as "spiritual orphans", without any direction or guidance to grow in their new born faith. They are left abandoned without a church to follow up and assist in their spiritual journey. As such, many fall back to their sinful lives or live with a false assurance of salvation, thinking that they are saved, simply because they prayed a "sinners prayer".

During the Pastors Conferences, I taught Jesus' plan that He had, in how He would reach and ultimately save the world. All we need to do is look at the Gospels to see what Jesus did in His Master Plan. What we realize is that Jesus spent the majority (almost 90% of his time) not with the masses, but with the few, his disciples, in making disciple-makers who would change the world. Jesus invested His life in a few, so that through the few, the masses would be saved. We see what happened with the 12 Apostles in the book of Acts as they continued Jesus' ministry to reach the multitudes and shake up the world. I taught eight key principles from the Gospels, utilizing Robert Coleman's book,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This was Jesus'

plan in how He would raise up mature and equipped disciples and disciple-makers for God's kingdom.

At the conclusion of the Pastors Conference, we had a time for the Pastors to respond with feedback and questions. The very first Pastor from Ethiopia stood up and spoke directly at me. He said, "Your teaching is NOT our teaching. This is NOT what we have taught to our people." When this Pastor shared this, I acknowledged that this teaching would contradict much of what is taught in Ethiopia and for that matter, the ministry philosophy that is taught and practiced throughout the world. How would these Pastors receive this teaching? This Pastor continued on sharing, "Although this teaching is NOT our teaching, we believe that it is Jesus' teaching! We thank God that He has a plan for our country. And I, as the Senior Pastor of my church, will commit and promise to apply and implement this teaching at our church!"

Those words brought chills and a joy that I cannot explain. To know that through this teaching, churches in India and Ethiopia will focus on Jesus' plan to make disciples, and not just focus on numbers and large crowds, brought a sense of great purpose and lasting significance. To know that these Pastors, especially Senior Pastors, will commit to raising up mature and equipped disciples, who will become leaders in God's transformative work, impacting countless lives is something we cannot put a value to. For

we are not just striving for converts to Christianity, we seek to build up disciple-makers who will transform this world through Jesus Christ.

I thank God and our church for this opportunity to lead the Pastors Conferences in these beauti-ful countries, to equip and train pastors and leaders who will then do the same for their people. Let us commit to praying for these leaders in India and Ethiopia and all the other countries that God sent us to, that they would be faithful in carrying out Jesus' Great commission, His last words to u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Let us commit to doing the same here in NY.

Soli deo Gloria!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누군가가 우리에게 남기고간 말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특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남긴 말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암투병을 하시던 제 할머니는 제게 편지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그 말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모으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삼으라(make)"입니다. 다른 동사들은 모두 이 명령어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제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와 에디오피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신학교가 부족해 제대로 신학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감동을 주셔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인도와 에디오피아의 목회철학은 이곳 미국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각종 집회와 부흥회들을 통해 대중과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것인가가 목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의도로 계획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처음 받아들인 자들이 지속적인 인도와 지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 고아"의 상태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다시 죄악된 삶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단지 "죄인의 기도"를 한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미나 기간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이르러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계획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대사명을 완수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거의 90%)을 군중들이 아니

라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될 그의 제자들과 보내셨음도 알게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 적은 수를 위해 헌신하셨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열두 사도들이 온 세상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어떻게 지속해 나갔는지를 보게됩니다. 저는 로버트 콜맨의 책 "복음전파의 대사명"을 인용하여 복음서가 말하는 여덟가지 원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잘 훈련되고 성숙한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 만드는 자들을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에, 우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것과도 다를 뿐더러, 우리가 가르쳐 온 것과도 다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 가르침이 에디오피아에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가르쳐 온 목회철학과도 많이 상반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목사는 "우리가 배워 온 것과는 다르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이제 인도와 에디오피아의 교회들이 단지 숫자의 크고 작음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목회자들 특히 담임 목사들이 잘 훈련되고 성숙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 삼는 자들을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훈련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도와 에디오피아를 비롯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모든 나라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신실하게 지킬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곳 뉴욕에서도 동일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Ethiopia Missions 2017 Recap

Pastor, Kiwi Jin

This summer, KAPCQ sent out 16 missionaries to the country of Ethiopia. The team had members from all life stages, both Korean and English speaking individuals, and many different journeys of life. However, God really chose every individual to a team this summer to obey the Great Commission. With months extensive training and preparation, the team left on Tuesday evening August 8th. With an eighteen-hour flight ahead of them, Pastor Kiwi instructed the team to spend time with God in the Word and in prayer but also to make sure to get some rest as part of our duty was to make sure we were well rested when we arrived. With little bumps here and there with a late flight to long waits on lines for visas, we finally arrived in Addis Ababa, Ethiopia where we were greeted by Pastor Peter, Pastor Park, and other members of the Ethiopia missions team that had gone ahead of us.

As the next day began, much of it was spent in preparation and practice for the upcoming week's ministry. That evening we visited Full Gospel Church. There we worshiped with other members of the church. At the conclusion of their worship, we were able to lead a few songs of worship, share a testimony, and give our 'Life of Jesus' skit and dance performance. At the end of everything, we prayed together with the church and had some time to meet and greet the people of the church. This concluded our first day of ministry.

The next day, we headed to a mega church in Addis Ababa called CJ Church. We had the opportunity to lead a teacher's training there as well as lead a short VBS for the students to kick off what the teachers had learned in the training. Led by Deacon Saehee and older members of the team, the teacher's training went extremely well as a pool of 60 teachers were trained in Hope for Kids. The same day, the teachers were able to utilize the skills they gained to practice what they had just learned. Both the teachers and students launched a brand new youth and children's ministry that weekend.

As the weekend approached, Saturday was the day that we would have the privilege to participate in a huge revival. Members of the missions team led the people into an extended time of worship. Then, Kwangshik Oh shared his journey and testimony to the crowd of thousands of people. This was followed by our teams 'Life of Jesus' skit and dance which concluded our portion of the worship. It was amazing to see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together to sing about Jesus and His grace poured out for us.

We then commuted out of the urban area to a more village area to have a multiple day worship and VBS with the children of the church. We worshipped with them on Sunday where Pastor Kiwi preached on the Prodigal's Son. At the conclusion of the message, individuals came up unprompted to confess their sin and return to the Father. We had a time of prayer and repentance. Once again the mission team performed the 'Life of Jesus' skit and dance. At the conclusion of the worship, we went out and spent time with a multitude of children doing balloon animals, face paint, and polaroid pictures. It was an amazing time of being able to share life, laughter, and love with the people of this village church. The following day was followed with VBS for the same children. Deacon Saehee and the team taught the students the gospel message and it was so encouraging to see children learn the gospel message with their bodies, minds, but most of all their hearts.

There were so many other facets of ministry throughout our trip but these are the highlighted moment. As a team, we ask that you continue to pray for the country of Ethiopia. Though there has been a recent growth in Christianity,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Let's pray for the people's hearts to be open to the gospel of grace, not works. Let's pray for sound teaching to be preached and taught to the people of Ethiopia. And lastly, let's continue that God's will be done in Ethiopia as it is in heaven.

Testimonies

By Elizabeth Shim

It's not what we do, but how we do it, for the glory of God. This summer, God had once again given m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summer missions trip with KAPCQ. I, with 15 other members, took the extensive flight to Addis Ababa in an attempt to spread the good news to the people we would encounter.

Give thanks and find joy in suffering, said Paul in his letter to the people of Colossae. As a team, we found ourselves being put in many unexpected situations and asked of many unplanned tasks. As someone who likes to plan in advance, I found myself becoming very frustrated when thrown last minute assignments. Many things were abruptly changed, and my motivation levels were dropping. But the Lord provides, amen? He sent us as a team, and a team provides support to each other when we need it. Although we were of different ages and different upbringings, my teammates and I were abl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try our hardest to answer the calling of being a Christian. I came back to New York having learned many things from my teammates, one of these things being the power of encouragement.

What I've learned this time, and each time I've gone on a missions trip is that no matter how much we prepare, or how much we anticipate and plan, is that without the grace and the mercy of Christ, all human efforts amount to nothing. I can confidently say that Jesus Christ was the center of our team; He was and is the center of everything. Even though our trip now is done, I trust that the Lord is still working to grow the seeds of faith that has been planted by the Holy Spirit.

By Jae Jeong

During our missions trip in Ethiopia, we spent time meditating on the book of Colossians and I found myself reflecting on this verse: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ESV) Throughout the trip, I found myself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that God has blessed me with in my life and how grateful I was to have such a generous and loving God. I felt especially blessed to have such a great team that I could serve with. I was truly encouraged by the members of the Ethiopia team. Members of our team were constantly diligent in all their preparations, supporting other members by helping them with work they were not required to do so, and most importantly, they did not forget that everything was all for the glory of Christ. It was encouraging to see our team adapting to the constant changes we encountered and it was a blessing to see everyone's preparations bear fruit in the worship and VBS that we led. I am so grateful the God has blessed us with the opportunity to serve Him through missions.

Towards the Villages, Cities & All Four Corners of India

By Deacon Jonathan Hong

By God's grace, Pastor Peter Kim and I were able to go to India for missions this summer. It was the third year of KAPCQ Missions in India. Before, we did ministry in the rural and village areas of India. But this time, we were sent to the highly urban and metropolitan city of Bangalore, dubbed the "Silicon Valley of India." The Indian missionary we supported was Pastor Benjamin Thomas, a National Coordinator for Evangelism Explosion (EE) India. Our ministries impacted the village and city areas with the vision to spread to all four corners of India.

Our Indian Missions consisted of three main ministries. The first was the Agape Pastors Conference. God has been using Pastor Benjamin and his father Pastor Thomas Kutty to mentor about 50 Indian village pastors. At the conference, God used Pastor Peter in a powerful way to impart a passionate and lively discipleship leadership training to the Indian pastors. Pastor Peter emphasized the vital importance of raising their congregants as true disciples of Christ and outlined practical steps to do so. All the village pastors vowed to raise up their church members as fruitful disciples of our Lord. Through them and their disciples, we are confident the kingdom of God will expand in the villages of Karnataka State and all of India.

I was also used of God to give the Indian pastors my personal testimony as well as one about my experiences in the U.S. Army and in EE ministry. Afterwards, I led the village pastors in a boot-camp style Army Physical Training (PT) Session, which they enjoyed. The pastors almost never work out, so they were tapping out early. I emphasized the key necessity of physical exercise for the health and longevity of their precious lives and ministries.

Afterward s, Pastor Peter departed for Ethiopia to continue his kingdom missions there. And I remained in Bangalore to continue on with my Indian gospel adventures.

On Sunday, Pastor Benjamin and I travelled out of Bangalore to a rural town called Ramnagar two hours away. Pastor Benjamin had been leading Sunday worship services with about 50 students at a nursing and pharmacy college there. I was asked to give my testimony and share a Word. When I first entered the classroom for service, a young lady told me, "I'm not Christian. I just come here to pray." So I present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students along with a testimony of my own college experiences in NY. The students were very attentive and receptive to the message. Afterwards, they served us a traditional Indian meal. One of the dishes was "momos," the Indian version of dumplings. It tasted just like "mandoo," meaning, very delicious. And yes, we ate with our hands.

During my second week in India, God used Pastor Benjamin and I to conduct a four-day XEE Training for 10 young adult staff members at Chai 3:16, a Christian youth outreach center located next to a major Catholic college in the heart of the City of Bangalore. A famous Indian Christian musician named Benny Prasad founded the

facility. It is called Chai 3:16 because tea is served for free there ("chai" means tea in Hindi) and of course referencing John 3:16.

The job of the Chai 3:16 staff is to speak with the guests - including Christians, Hindus, Muslims, atheists, etc - become friends with them and try to steer the conversation towards the gospel. XEE is EE Train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with an emphasis on connecting with people. So XEE was perfect for them. God arranged everything in advance! The trainees soaked in everything very, very well. It was a true privilege and joy to instruct such devoted trainees. And they implemented what they learned as they spoke with the guests each day. It was powerful to see.

Both the Ramnagar college church and Chai 3:16 had one thing in common: The students and staff members there were from all different regions of India. Some looked like Koreans or Chinese, because they were from the northeastern states of India bordering Tibet and China. So the ministries we conducted among them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thei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ministries in their own towns and regions in all four corners of India.

Lastly, my time in Bangalore was sprinkled with God ordained "kairos" encounters with special people. I was able to share the gospel with an Iranian man and a Syrian man, who opened a Persian sandwich shack there. I gave gospel tracts to young students from Oman. I met a young man from Austria, who came to India based on God's vision for him to be involved in missions. I introduced him to Korean BBQ at a Korean restaurant there. I never imagined I could eat "samgyupsahr" in India. But all things are possible by God's grace!

And by God's grace and Pastor Peter's crazy expert Emirates flight booking skills, I was able to spend half a day in Dubai on my return flight. I visited Burj Khalifa,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On the 148th floor, I gave gospel tracts to the Filipino and Nepalese servers there. I also shared about my Christian life with the tour guide who was from China and connected her with a local church in Dubai. She said she would begin attending there.

In all, our time in India was truly powerful and eventful. I was feeling kind of burnt out in my spiritual life before I departed for India. However, returning from India Missions, I feel totally revitalized spiritually. I hope and pray that the kingdom works God used us to accomplish in India will continue to grow and bear fruit. I also pray that KAPCQ will continue to go to India for missions and that more members will join our India Missions Team next summer. All glory to our Lord God Almighty alone!

- 퀸장 기네스북 / 캄보디아 단기선교 미용부분 -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미용봉사

하루 평균 50~60명, 5일간 최소 250명

세상에는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로 기록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사람들에게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의미는 본인의 영광을 위한 것일테지만, 퀸장 단기선교팀에게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의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죠.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에서 미용사역을 하신 조영숙권사님, 과연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수년간 미용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조권사님께서는 이번 캄보디아 사역에서 하루 평균 50- 60여명 미용사역을 하셨습니다. 5일간의 사역기간 총 인원이 최소 250명에 가까운 놀라운 기록입니다.

첫 사역일이였던 토요일에 학생수가 천여명에 이르는 공립학교에서 밀려드는 아이들의 행렬에 순간도 숨을 돌리실 여유없이 미용사역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날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든 많은 사람들로 60여명이상 미용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실내공간이 아닌 건물 마당에서 한여름 100도에 가까운 무더위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머리에 이가 많아서 바람이 불어오면 잘려진 머리카락과 이가 얼굴과 몸으로 날리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신 조영숙권사님을 퀸장 기네스북에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한국어에서 스페니쉬 전폭으로

조승희 집사

온두라스 선교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친밀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53기 전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먼저 한국어로 전도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격상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제시를 하는 것이 한편 쑥스럽고 내키지 않은 것이였지만 전폭을 통해 제게 담대함과 확실한 믿음을 더 키워주셨고 이제는 온두라스라는 모르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어 스페니쉬어로 전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전폭을 위한 큐브와 복음 제시 내용을 스페니쉬어로 준비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막상 준비하고 나니'과연 내가 온두라스에서 스페니쉬로 전폭을 할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니쉬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고 질문을 했을때 대상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수 없어서 확실히 100%로 전폭이 될수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할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께서 스페니쉬로 복음제시를 녹음해 주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민이, 하민이와 함께 녹음된 복음제시를 들으면서 서로 발음 교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키세나 공원에 가서 스페니쉬 대상자를 찾아 스페니쉬로 전폭을 하였습니다. 어눌한 스페니쉬어로 복음제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걱정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마음에 위안을 주셨고 저는 그저 작은 도구임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온두라스에 가서 어린이 VBS사역, 안경사역, 전폭사역등 여러 사역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복음제시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 셋째날, 학교 사역이 끝나고 오후에 4그룹이 흩어져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한 가정을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은 학교에서 가까운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집은 20-30분 거리가 기본이었습니다. 이명옥전도사님과 강민, 하민, 저와 통역관이 함께 여기 저기 가파른 곳을 지나 다녔지만 찾아가는 곳 마다 집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을 지나갔는데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 밖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 집인것 같아 저는 "파티가 있는 집은 힘들것 같네요… 다른데로 가죠…"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길 제안했고 우린 다른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꼬불 꼬불한 좁은 길을 지나 마침 한 집에 갔는데 그곳은 이미 제가 학교에서 복음제시를 한 아주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야만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며 미끄러운 경사길을 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집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고 우리는 시간을 더이상 지체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파티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하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쩌지?" 하며 두려움이 물밀듯이 왔습니다. 집에서 어른 한 두명에게 복음제시는 하는 것은 편하고 쉬웠지만 파티를 하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두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난감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 고민도 뒤로 한채 파티가 있는 집으로 우리는 향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파티를 하냐고 스페니쉬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파티!"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파티?!?"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아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Iglesia Assemble de Dios 교회였고 그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님 파티"라고 말했는지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교인들을 모아두고 복음제시를 하기로 결정하고 교회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 앞에서 복음제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둥글게 앉아 그곳 현지인 후안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저는 크게 스페니쉬어로 진단 질문을 시작하였습니다. " ¿ Sabes con seguridad si vas a estar en el Cielo con Dios un dia?"

몇몇 성도들은 쥐 죽은듯이 질문을 듣고는 손을 들었지만 손을 든 분들 중에 천국에 가는 이유에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셨고 대답을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진단 질문보다는 우리가 하는 스페니쉬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나올때 마다 진지하게 구절을 따라 읽으면서 복음제시에 경청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셨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하민이와 강민이가 읽은 복음제시도 잘 들으시며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전혀 모르는 교인들을 온두라스에서 만났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였습니다. 요나처럼 가지 않으려 했던 니느웨를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한국어 전폭을 통해 미리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스페니쉬어로 복음제시를 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Little Angels on the Mountain"

조강민 8학년 / 중등부 (Brandon Cho, 8th grade Jr High)

This summer, God blessed me to go on a mission trip to Honduras and I am very grateful for His amazing love. Out of all the mission trips I've been to, Honduras was different and special to me because I learned so much from the Honduras children.

One place I can't forget about is a school on a mountain. The school that we visited was located on Yoro mountain where it took us 2 to 3 hours to get there by a truck. The mountain roads were so bumpy and narrow and it was endless. As we were going higher and higher and it seemed like I could touch the clouds in the sky. The sunbeams were so hot and I was getting tired of sitting on the truck in the sun for a long time. Flies and bugs were all over when we were eating and I couldn't be more patient with them anymore. I couldn't imagine how Honduras children live with bugs on the mountain and go to school every day by foot.

However, as we got to an elementary school named Las Crista Numero 1, my tiredness went away and I was so excited to meet the children. The children were wearing school uniforms and they all walked for about 30 min or 1 hour to get to school. I was little ashamed of myself that I complained about the heat and flies on the truck before. The children had never complained about the heat, bugs or a long walk. Instead, they were just happy to be there although there was no air conditioner, electronic games, fast foods or clean tables in their one and only classroom. The children were very joyful to sing and praise the Lord and listen to the missionary, David Lee, preaching the word of God. Moreover, they were not tired of memorizing a bible verse. Their smiles were genuine and loving like little angels that I would never ever forget.

Also, when it was a snack time, I was so touched when a little girl wanted to save one donut for her mom. She ate only one and wrapped the other donut with a napkin to bring it home. She could've eaten that, but she was so thoughtful and loving for her mom. This made me think about my life in the U.S. because I don't think I ever saved some donuts for my mom. I rather fought with my sister to eat the last donut or threw the left over away if I didn't want to eat. I felt bad that I was always selfish and didn't care about others.

Through this mission, I thought I was going to teach the Honduras children about Jesus, but actually I learned so much from them. I already felt God's love and humbleness presented in their hearts and I realized how much I was spoiled and selfish in the U.S. not knowing God's love and blessings for me. I learned to be more thankful of what God has given me and what He did for us. I also want to thank God for reaching out to those Honduras little angels on the mountains because those children are often neglected and unreached. I could tell how much God cares about each one of us and His love never fails.

유년부 동전 선교

' 와우! 동전 풍년이다~ '

크레용 모양의 예쁜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가득...

유년부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교를 위한 동전을 모아서 주님전에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모여진 저금통들을 계수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1년에 약500불 정도의 선교 헌금이 드려지게 된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닌 일년을 하루도 잊지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으로 헌금을 저금하는 아이들의 귀한 마음이 가득히 담긴 귀한 저금통이다.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하는 동전들을 보며 때로는 1전을 소홀히하는 우리의 삶에 귀한 일침을 느끼게 한다. 1센트, 5센츠, 10센트, 25센트... 사랑의 손길로 모아온 아이들의 정성에 더하여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분리하여 종이팩에 담는 수고의 손길을 더함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선교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유년부의 동전 선교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퀸장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랑이며 주님의 자랑임을 믿습니다.

미국 원주민 여름선교를 마치고...

아리조나 나바호 이영호 선교사

각 선교팀들의 사역을 마칠 때마다 많은 생각과 더불어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만 선교교회가 현지선교사에게 선교후기를 써달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들은 더 살리고 부족했던 점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라 생각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몇 가지 정리해봅니다.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현지교회 사정상 저희 주택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역팀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였음을 고려하여 불편함들 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잔소리 많은 현지 선교사가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은 군소리들도 사랑으로 용납해주시고 각종 기물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써야 한다는 그 말 한 가지만 빼고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팀원들

각자의 개성이 확실한 팀원들이지만, 그리고 그런 개성이 만발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선교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닌, 평소의 관계를 엿보게 됩니다. 또한 각 팀원들 개개인들을 나름의 개성과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기억합니다.

그곳은 그곳대로, 이곳은 이곳대로 몰두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그 의도적인 기억이 혹시 오래 가지 않을지라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각 대원들의 신앙과 섬김이 주 안에서 지속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다시 만난다면 옛 정과 새 사랑이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합니다.

주방팀

개개의 살림도 아니고 함께 하는 일에 성격차이와 이에 따른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더불어 섬김이 익숙한 듯, 불평할 여유도 없이 화통하게 소통하며 수고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도 책임 맡은 분들의 온유하지만 확실한 지도력도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역팀

이번 팀에는 딸려온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없었다는 점, 현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대거 동참했다는 것 등이 귀 선교팀의 바람직한 특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열정과 교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성경말씀에의 집착,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염두에 둔 기도하는 자세가 귀 교회의 일반적인 영성을 엿보게 해줍니다. 본교회와 다른 형편에서의 이번 사역을 일차 경험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 전체와 부분적인 부분까지 조직적인 사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동했습니다

이미 위에 몇 가지 언급하긴 했지만 아마도 이것은 선교팀은 물론, 선교팀을 보낸 교회가 하나 되어 준비기간 동안에, 그리고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귀 교회 사역자들은 물론 교우들이 하나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곳이 아닌 곳에 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오게 된 것, 바라기는 하지만 바랄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별들과 무지개 등등... 물론 우리의 믿음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와 가능성, 가서 하는 선교사역이 있지만 현지인들을 데려다 사역해야 할 필요와 가능성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교사인력이 동원되어 분반학습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운전인원이 부족하여 사역팀이 아이들 이동까지 도맡아야 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차량운행을 도울 분들도 보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동역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귀 교회, 그리고 선교팀의 일원으로 이곳에까지 와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감당하신 귀한 사역이 각 가정과 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곳 현지선교를 위해서도 배전의 기도와 후원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바호국 투바시티에서 이영호, 이선옥 선교사 드림

“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들 ”

온두라스 이동철 선교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퀸즈 장로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여름은 다른 해보다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유달리 장거리 이동하는 단기 선교가 많았고 동시에 선교관 확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마음 고생도 많았습니다. 8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올 여름 단기선교가 끝나고 이번 주에 새 학기 시작 준비를 거쳐서 8월 21일부터 한해 농사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단기 선교에는 퀸즈 장로교회 청,장년팀과 실버 단기 선교팀이 연이어 사역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청,장년팀은 이명옥전도사님께서 워낙에 잘 준비하시고 해마다 올라가는 산동네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산동네 학교 아이들이 많은 사랑과 기쁨을 듬뿍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열악한 산동네 아이들의 집과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격려를 줄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전도팀을 맞이하여 주고 복음에 귀 기울이며 친 형제처럼 대하여 주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학생들만 보다가 그들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학생들의 부모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며느리 되는 한 자매가 많이 늙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연로한 시 어머니를 위해 직접 선교팀을 찾아와서 집으로 초청하여 시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매 사역지 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에도 상관없이 복음 전도에 열심이신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장년 선교팀과 사역하면서 한편으로 기대 반 걱정 반하면서 이어서 오실 실버 선교팀으로 인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 가까이 되신다는 소식에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안전 사고에 대해 걱정 하면서 어떡하면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막상 공항에 나가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공항을 나오시는 모습이 한 주전에 오셨던 청,장년팀보다 훨씬 활기차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에 제가 잠시 정신 줄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걱정이 된 것은 유일한 홍일점이신 장로님이 힘들어 하시거나 외로워(?)하실까 걱정이었는데 모든 권사님들을 섬기시고 모든 짐들을 손수 옮기시며 모든 권사님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모습에서 걱정은 사라지고 장로님의 기사도 정신에 감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고전 무용으로 표현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스페니쉬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도하시는 모습에는 선교사인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이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와 찬양을 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마치고 심의례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저녁 기도시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온 마음 다해 선교지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더 더욱 감사한 것은 청,장년팀과 실버팀의 든든한 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무엇 보다 온두라스를 생각하시고 팀을 파송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해외 선교 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두라스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두라스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뿌려놓은 꿈들을 이곳 아이들이 먹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재목들이 되어서 온두라스와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온두라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온두라스에서 이동철 선교사 드림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들고 선교지로

편집부

캄보디아 안경사역팀 (김유진, 차동미, 장봉석) 과 교장선생님

퀸즈 장로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2017년 단기선교에 안경사역을 계획하고 선교대원들에게 검안교육을 제공하여 각 선교지별로 안경사역팀을 구성하였다.

2016년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장봉석 장로님께서 현지에 안경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생활의 불편함이 많은 것을 보고 안경사역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시작점이 되었다.

2017년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검안, 안경사역에 관해 알아보던 중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 세이브 비젼 선교회 ” 와 연합하여 본격적으로 검안사역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세이브 비젼 선교회” 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검안교육을 실시하며 안경사역을 준비하는 제반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세계 보건 기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 9-12 억의 인구가 검안이 필요하며 그 중 75%는 단순히 안경을 씌워 줌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안과 검안 전문인들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의 인구 중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교지일수록 안경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지에서 검안을 하고 안경을 맞추어 줌으로써 육신의 눈을 뜨게 하여 이 세상의 빛과 사랑을 선사하며 동시에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사역이다.

단기간의 검안훈련으로 많은 대상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으며 큰 자본없이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사역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안경으로 즉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안질환 예방 교육과 선교사들에게 후방에서 안경, 검안기구, 안약 등 자원을 지원해 주는 사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3개국(온두라스, 실버, 캄보디아)의 단기선교 대원들은 14주의 검안교육을 받는 것이 정석이지만 선교일정과 맞지 않아 7주의 집중훈련을 받았다. 시력과 도수 측정, 근시, 원시, 난시, 노안검사교육과 도수에 맞는 안경을 처방하는 것을 교육받고 총 6명의 대원들이 자격증을 받아 사역을 앞장 서서 진행하였다. 선교팀별 일정대로 교회에서 구입한 2대의 검안기와 도수가 다른 수백개의 안경, 돋보기를 가지고 나가 사역하였다.

안경사역의 시작점이 된 캄보디아의 경우는 대도시라는 점과 사역장소가 공립학교와 교회여서 예상보다 많은 현지인들이 모여들어 5일간 총 374 명에게 안경을 맞추어 주었고 시간부족과 준비해간 물량부족으로 사역을 일찍 끝내야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또한 캄보디아 지역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어린이 사역위주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안경사역을 통해 중장년층으로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비젼을 갖게 된 것은 또 하나의 큰 열매이다.

온두라스와 온두라스 실버팀 또한 사역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육신의 눈을 밝힘과 동시에 복음으로 영의 눈을 밝히는 사역으로 많은 결실을 맺고 돌아왔다.

해외선교위원회는 추후 지속적인 검안교육을 교인들에게 제공함으로 안경사역을 더욱 강화,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검안, 안경사역에 청장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권면하며 어느 때에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갈 준비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온두라스 실버 안경사역팀

온두라스 안경사역팀 정철호 집사

첫 탄생 – ‘실버 단기선교’

소은자 권사

오늘날 인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어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온두라스, 또한 첫 탄생인 실버 선교.

생소한 일에는 언제나 염려 반, 기대 반으로 준비기간 동안 기도모임부터 기초검안교육 또한 외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갈수록 부담감에 마음을 조이는 것 같았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며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갔다. 기도 중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사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 이니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감을 심어주셨다.

인생에서 한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안했던 후회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았던가. 삶의 보람이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신의 선물이 아닐까?

가자 온두라스로!!

컴퓨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타임캡슐을 타고 1960년대 보리고개에 도착한 기분이다. 선교사님의 멋진 운전실력과 스페니쉬는 아무도 따를 자가 없어 보인다. 산등선 길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 찾아간 곳은 드문드문 집들이 있는 산동네...

‘아니! 이 높은 두메 산골에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나 이게 웬 말인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같이 어린이, 중년, 노인들을 보내주셨다.

말과 언어와 생김새가 달라도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은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다. 또한 선교사님의 간단한 복음제시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 어린이들의 열심과 밝고 초롱초롱한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눈동자는 금방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다.

한 오십 중반 되시는 분은 사고 후 왼쪽눈 밑에 살이 조금 드러나서 진물이 조금씩 흐른다. 인공 눈물 약으로 깨끗이 닦고 검사에 들어간다. 마침 먼 곳은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이 서서히 잘 보이지 않아 낮은 도수의 안경과 인공눈물약을 주니 고마워서 가면서도 연신 인사한다.

어느 육십 정도 밖에 안 되었으나 칠십도 넘어 보이는 여인은 멀리는 잘 보이나 가까운 데는 안 보인다고 한다. 글을 놓고 읽으시라고 해도 글을 모르신다. 혹시 바느질은 잘 하시느냐고 물으니 바느질은 잘 하신다고 하신다. 가까운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는 안경을 드리니 방끗방끗 웃으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재차 머리를 아뢴다.

열악한 환경에 안과 선생님 한 번 만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찡함을 느꼈다.

선교사님이 한 소녀를 데리고 왔다. 가끔 발바닥이 아파서 학교등교를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처음에는 혹시 꾀병이나 싶었지만 당뇨나 다른 기관에 문제점이 있을까 걱정되어 열심히 진찰을 해 보았고 신발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친 자갈 같은 길을 이런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니니 발이 아플 수밖에 없음이 당연한 것을...’ 지금 내가신고 있는 신발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젊은 엄마들에게는 예쁜 선글라스를 검사 후 주니 좋아한다. 이들에게 이 조그마한 것을 주는 것은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 준비한 선물이였기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다.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곧 이웃 사랑이 아니겠는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한다.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이 열악한 환경에 사는 이들에게 보이는 육신의 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누가 우리를 실버 팀이라 했던가!

모두 지극한 연세이지만 일 할 때만은 십대들이다. 하루 종일 서서 일 하시면서도 불평 않고 찾는 것에 도사이신 권사님들과 안경도수를 한자 한자 집어 주시며 말없이 웃으시며 열심이신 권사님들 그리고 유창하게 그 나라말을 하시면서 협조하신 장로님, 말없이 먼 공항까지 단잠을 설치고 여명을 헤치며 달려오신 베테랑 운전기사님들의 수고 덕분에 온두라스의 아니 단기 선교의 기적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의 나이를 누가 탓하랴, 실버팀 화이팅!

인도 영화 ‘블랙’을 통해본 기독교 교육의 가치

편집부

영화감상 QR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2005년 에 인도의 산제이 릴라 반살라 감독이 만든 ‘블랙 (black)’이란 영화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조명하고 그 감동을 나누고자 이 글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헬렌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도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만든 영화로서 실화는 아닙니다. 헬렌켈러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남자 선생님이 등장하고 장애인 주인공의 대학 졸업을 삶의 정점으로 선생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주인공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늙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의 반전을 하는 등으로,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감각과 언어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힌두교와 불교의 산지인 인도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종교의 3% 밖에 차지하지 않는 기독교의 배경이 영화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미셸 아버지 서재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술품과 등장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 등등... 하지만 이런 공간적 배경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나 장님입니다. 아무도 그 분을 보거나 들을 수 없으니까요”라고 외쳤던 미셸의 대사나 “‘불가능’은 제가 미셸에게 가르치지 않은 유일한 단어”라 말하는 사하이 선생님을 통해 드러난 제자에 대한 헌신과 열정, 굳은 의지와 믿음, 용기, 그리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성경적 가치가 더욱 기독교적 배경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존재의 미학과 영향력의 재 생산

어둠 속에 갇힌 인생을 끄집어내어 빛의 세계 안에 제자를 들여보내는 일이 기독교 교육철학이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이 영화 ‘블랙’에서는 실제적이며 구체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중복장애아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성인으로 키워낸 선생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기독교 교육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형상인 존재로서의 미학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영향을 주어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재현시키고 있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사하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두움에서 벗어난 미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기억상실의 어두움

에 처한 사하이 선생님을 다시 도움으로써 그 사랑을 재생산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미셸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소리는 침묵으로 변하고, 빛은 어둠으로 변하는 세상, 이게 나의 인생이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 그 세상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단어는 '블랙'이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8살 영국계 인도인 소녀 미셸(라니 무커르지). 아무런 규칙도 질서도 모르던 미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 선택으로 장애아를 치료하는 사하이 선생님(아미타브 밧찬)을 부르고 그에게 그녀를 맡기게 됩니다.

그녀가 집에서 종까지 단 채 동물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본 사하이 선생님은 미셸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녀에게 말과 소리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수화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굳은 믿음과 노력으로 끝내 그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그녀를 세상과 소통하게 해 준 사하이 선생님은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딘 미셸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기독교 교육의 자세, 직면

아이의 몸에 방울을 달아 위치를 알리는 일이나, 아무 음식이나 손으로 집어먹으며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기독교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여덟 살의 중복장애아 미셸을 대하는 교육의 자세는 직면(直面)입니다. 직면이란 직접 마주 대하고 경험하는 것을 뜻하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부여하여 해석하자면 그 안에는 정직하고 솔직하며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내재해 있습니다. 즉 이는 제대로 볼 줄 아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앞을 못 보는 미셸에게 가르친 첫 글자가 ABCDE가 아니라 'BLACK'인 것은 이같은 직면에 대한 영화 전체의 함축된 의미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어둠의 세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면은 창조적 수용인 셈입니다.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고난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옳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직면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 26:36-46).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똑같은 기도를 두 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42). 여기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에 대한 직시와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는 동시에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면모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직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면은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인 것입니다. '블랙'에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은 결국 미셸 자신의 밖에 있는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을 만지고 물에 빠지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발음의 진동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워터(Water)란 단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참다운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며, 내 삶을 직면하는 일인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미셸을 위로하며 사하이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맛있게 먹어야해." 복음을 전하는 때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자세, 실패에의 축하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미셸에 대해 사하이 선생님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미셸은 이를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축하했지만, 우리는 실패를 축하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거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한 거미 이야기를요.. 결국, 실패란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기독교 교육,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축하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 언젠가 복음은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미셸을 대학에 진학시키려 할 때 대학 관계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하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제가 미셸에게 가르치지 않은 유일한 단어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미셸은 수업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전 눈이 안 보이지만 꿈이 있어요. 우리의 꿈은 언젠가는 제가 졸업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눈으로 성과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교육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하이 선생님이 곧 미셸을 떠나야 할 것을 깨닫고 미셸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 삼키려 할거야. 하지만 넌 항상 빛을 향해 걸어가야 돼. 희망으로 가득한 네 발걸음이 날 살아 있게 할 거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중단하지 않고 어둠에서 탈출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지 않고 중단하고 어느 곳에서 안주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빛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미셸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사하이 선생님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납니다. 미셸은 사하이 선생님을 애타게 수소문하는 한편, 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미셸은 대학을 20년만에 졸업합니다. 그녀는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미는 수차례 떨어진 끝에 집을 지었습니다. 개미는 산에 올랐고 거북이는 사막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 미셸 맥날리가 해냈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실패를 넘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결실할 것이고 마침내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입에서 승리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셸은 졸업식장에서 선생님에 대해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항상 뭔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은 건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저를 모르는 사람 팔에 넘겼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분은 마술사였습니다. 수년동안 그 분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맹인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그 분을 보거나 듣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져봤습니다. 난 그 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난 그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술사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하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스스로에게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다른 이에게는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화 '블랙'은 헬렌 켈러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한 앤 설리번 선생님의 기독교 교육을 실천한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 곧 기독교적 삶이며 교육입니다. 그 삶은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영화감상 QR (한글 자막)

영화감상 QR (영문)

References:
1. 영화감상 : https://youtu.be/Q5WPRW1bvsY
2. 이준구 목사, 인도영화 블랙을 통해본 선교적 삶의 가치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 크리스쳔 웹진, 소리, 2009년 9월 25일 posted.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
3. 강진구의 영화산책 –산제이 릴라 반살 리 감독의 '블랙', 2009년 9월 29일 posted.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부서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 위원장과의 만남

교육위원장 홍한나 권사

7월 중순이후, 뜨거운 여름을 캄보디아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 분당 할렐루야 교회까지 가서 함께 예배 드린, 교육위원장 홍한나 권사님께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하신 권사님과 점심 시간을 같이 지내며 즐거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가족소개와 2017년도 맡은 사역

저의 가족은 착함과 성실함이 무기인 남편 홍성익 집사(재정위원장)와 긍정적 마인드(엄마입장에서 볼땐 철없음)의 소유자 첫째 홍보라(고등부), Late Bloomer이자 해피 바이러스인 둘째 홍보영(중등부) 이렇게 네 식구 입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교육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장학위원회 회계, 건축위원회 부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장과 제자훈련 리더, 그리고 교회소식을 전해드리는 퀸장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구요.

교사가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적 목마름과 큰 교통사고

교회학교 교사는 고등부 시절 보조교사로 시작했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PK(Pastor's Kid)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1인 다역을, 그것도 아주 잘 해내야만 한다는 중압감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사를 하는동안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그리고 섬김의 기쁨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요. 할수 있는 한 오래도록 교사로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 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부도수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새교우로 우리교회에 등록하면서 직장다니며 아이 둘 낳고 기르다보니 교사로 다시 봉사할 엄두를 내지못한 채 7, 8년이란 시간을 보냈어요. 찬양대와 전도폭발 훈련자등 주어진 일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07년 사순절,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 차선을 위반한 승합차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한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차량은 반파되어 폐차시켰지만, 저는 손에 유리파편이 튄것 말고는 상한 데 없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유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일이 다시금 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교육위원장 맡겨졌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기도의 끈 만큼은 놓지 않겠다.

처음 유아부 부장으로 임명받았을 때도, 올해 교육위원장직이 주어졌을 때에도 많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유아부 부장을 맡기셨을 때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셨죠.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베드로의 호기가 어찌보면 무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강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이것 저것 재지 않고 물 위로 내딛은 믿음의 한걸음… 그 한걸음을 제게도 요구하셨어요. 이번에 교육위원장직이 주어졌을 때에도 고민하며 기도하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채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처지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집착해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한 병의 기름이 저에게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도 기도의 끈 만큼은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서의 교육 활동에 지원과 지도

교육위원회는 부서 사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위원회는 그러한 부서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으로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교회학교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커리큘럼을 검토합니다. 각 부의 교육계획 및 행사를 보고받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학교 전체 행사및 활동을 계획 추진하며, 교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 연합기도회등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부서의 건의사항과 대안을 검토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활동이 있지만 올해 중점을 둔 사역은 상반기부터 시작된 <교회학교를 위한 십만번 중보기도>와 하반기 중점 사역인 <교회학교 핸드북 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십만번 중보기도와 교회학교 핸드북 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체험, 교회학교를 향한 관심,
중보기도 사역의 확산, 교육의 틀을 마련

십만번 중보기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교회학교를 향한 관심과 중보기도 사역의 확산을 목적으로 올 1월에 시작했어요. 300명의 기도후원자가 하루에 한번, 기도카드를 가지고 중보기도함으로 일년동안 십만번 기도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기도후원자로 서약하신 280여명의 교사, 학부모, 성도님들 외에 서약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교회학교 자녀들의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심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핸드북 발간은 교육부서에 있으면서 필요성을 느껴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교회학교 전과정 커리큘럼 뿐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목표, 부서조직과 운영지침, 교사수칙 및 훈련내용, 교육위원회 규정, 추천 신앙서적 목록, 연령별 필수 암송구절등 광범위한 내용이 수록될 것입니다. 본질과 방향은 함께 하면서 각 부서의 장점과 자율성도 같이 모이도록 배려해 나갈 것입니다. 핸드북 발간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회학교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학교 활동 공간 절대적 부족, 교사들의 다른 많은 사역

다음세대를 위해 담임목사님을 비롯 모든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지만, 교회학교 활동을 더욱 확장시켜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주어진 다른 많은 사역으로 교회학교 사역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간과 교사 확보의 문제로 인해 교회학교의 예배와 말씀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도교역자, 선생님,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요.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시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도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문화를 모방한 교회 교육이 아이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와 교육적 효과는 물론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많은 교회들에게서 보고 있잖아요.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공간이나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말씀을 애독하는 교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사, 교회를 사랑하는 교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교사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의 교회학교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고 걱정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1세대의 희생적 헌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회학교 사역 뿐 아니라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을 이중, 삼중으로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 몸부림이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가정과 교회학교가 함께 동역 해야 …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이란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86%가 14세 이전인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10%는 15~30세에, 그리고 나머지 4%만이 30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신앙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 사역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교회학교 혼자서만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함께' 하는 교회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 6일간 함께 생활하고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부모님들의 위임을 통해 교회학교가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학교가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교회교육은 반쪽 짜리 교육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요. 교육의 주체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우리교회 교육부에 바램이 있으시다면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교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소망

매일 아침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시절 등교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들려주셨던 말씀인데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 60:21~22)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죠. 당시에는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예 없었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어느 누구도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에요. 하지만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세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로 시작하여 천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로부터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되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길,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굿잡! 도장 쾅쾅!

김지현 집사

또 나에게 옛날얘기를 몇자 적어달라고 하신다. 벌써 옛날 얘기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나?

교사로 봉사를 수년간 하면서 과연 내가 나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선생이었는가 궁금하곤 했다. 과연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십년 이십년후에 아가페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를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해 줄 학생들이 있을까 궁금하면서 두렵기도 하다.

주일학교 학생으로 또는 교사로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교사들이 몇 분 계시다. 우선 한국에서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형과 누나들을 쫓아 다녔을 뿐 교회의 즐거움을 못느끼고 있던 때에 찬양대 선생님께서 내 생일에 나를 신세계백화점 지하실로 데리고 가셔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좋은 생일선물까지 사주신 선생님이 계시다. 물론 먹는것에 약한 나였지만 처음으로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 후로 주일 아침예배만 참석하였던 내가 교회생활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찬양대도 하면서 조금 열심을 갖게 되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먹걸이는 최고의 전도지임이 분명하다.

미국에 이민으로 오면서 지금의 교회가 지어지기전 예배를 드리던 샌포드의 루터란 교회에서 예배후 지하실 작은 방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모여 드리던 중고등부, 그때 엄격하면서 많은 수고로 학생부를 지도하셨던 이대벽집사님. 샌포트와 바운에 한 집 1층을 교육관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주일이면 학생부와 청년부가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지고 주일저녁예배를 드리려 루터란 교회로 3블락을 걸어가며 교재의 시간을 가지곤 했다. "야자 타임"은 못 가진것이 아쉽지만 학생부와 청년부가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교육관(?)이 생기면서 비로서 교사들이 한분 두분 모이기 시작하였다. 얼마전 글로리아 20주년 발표회에 오셨던 김화영 전도사님, 학생부의 비로소 조직력이 생기기 시작하게된 김광일 집사님이 계셨다. 11학년이 되면서 한국에서 유학을 오신 이기선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학생부 생활의 하이라이트 제1회 시와 찬미의 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초등부 전도사님의 권고로 초등부를 섬기게 되었다. 아직 정식교사도 아니었고 보조로 섬기던 나에게 "선생님" 이라고 꼭 불러주셨던 부장 황인섭 집사님이 항상 생각이 난다. 지현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한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존댓말로 니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인생의 남는 교사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교사이다.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고 확신을 어떻케 가질수 있는지 잘 모를때 학생부 수련회에서 그때 당회장이시던 장영춘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느냐고 물어보시고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실때 비로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되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전도사님으로 명성을 날리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사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나의 평생의 교사로서의 방향을 잡아주신것 같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너무나도 어렵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성경을 한 구절로 간추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 절을 한 마디로 간추리면 "예수, 천당" 인데. ….

내가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쓴것같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의 머리속엔 주일학교의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영화처럼 필림이 흐르는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는 얼굴들이 있다. 또한 얼굴과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 마디 전해 드리고 싶다. "참! 잘했어요" 도장 쾅쾅!

Thank you, 채영주 선생님 and Erin Teacher

QPEM Esther Park / 박지슬

As I look back to my Sunday school days, I feel grateful that I've been taught and nurtured by so many wonderful teachers. When I was in 2nd grade attending 유년부 for Sunday school, I had a teacher named채영주 선생님. He is still serving faithfully in our church. You can see him serving in the parking lot department. Even though we exchange brief greetings on Sundays and so many years have gone by,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for his support and encouragement.

I remember one of the lessons he taught in Sunday school was about staying persistent in writing our prayers in our 신앙일기 (faith journal). I still enjoy writing my prayers in my journal. I think this lesson has taught me so much about God and has given me a way of having intimacy with Him. Thank you채영주 선생님 for being a reminder of humility and remaining faithful to God through service.

When I was in Senior High, another teacher has taught and helped me grow my faith is Erin Kim (김영은) teacher. She was my teacher since I entered high school. I do not have fond memories of going through high school. I struggled with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trusting people. All I wanted and needed was someone to listen to me and that's what she did. She showed me love and spoke truth to me in a gentle loving way. Thank you, Erin teacher, for being a reminder of God's strength and his constant love for me.

나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 내가 닮고 싶은 선생님

박소정 청년

저는 퀸즈장로교회 주일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그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한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기억에 또렷이 생각 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시절 반 이상을 맡으셨던 김지은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던 선생님, 떨어져 나가는 학생도, 연락 안받는 학생도 포기하시지 않았던 선생님 그리고 저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신 선생님, 졸업 후에도 계속 저희를 챙겨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맡은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청년부와 고등부에서 맡은 영혼들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보기가 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희 권사 손카드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배달되는 손편지

우체통에 들어오는 우편물의 80% 이상이 광고 전단지이며 나머지 20%도 그다지 중요한 우편물이 아니기에 우체통 가득 들어있는 전단지 뭉치를 대충 살피며 휴지통에 넣다가 익숙하지 않은 작은 카드를 보게되었다.

손글씨로 씌여진 딸아이의 이름이 무척이나 정겹게 느껴진다. 보낸 이는 Mi Hee Ksn. 교회학교 고등부 부장권사님이시다. 2017년 부장으로 임명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봄, 담당목사님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각별히 부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책임이 막중한 때를 보내고 계시다.

엄마와 같은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수개월째 말씀사역자 없이 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중등부와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고등부학생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작은 카드에 쓰여진 몇 마디에 가득히 베어난다. 뜻밖의 편지를 받은 딸아이도 그 사랑에 감동받은 듯한 모습이다.

짧은 안부인사일 때도 있고, 간단한 미션이 날아 올 때도 있으며, 위트 넘치는 유머가 담겨 배달되는 손편지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는 부장권사님의 마음이 전달되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4월에 처음 배달되었던 예쁜 손편지가 매달 우체통으로 배달되어 오고 있다.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더운 더위 가운데도, 바쁜 개인의 일상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으로 배달되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편집부의 요청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보낼 카드의 사진을 보내온 최권사님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서 하는것이죠. 요즘에는 핸드폰 text 만 하고 이메일만 하는데, 우체국에서 보낸 편지를 받으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친 일주일을 잊고 제가 보낸 카드를 보고 잠깐이라도 웃을수 있고 격려가 되면 좋겠어요"라고 수줍은 인사말을 전해오셨다.

아가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나의 일주일

영아부 / 조나영 권사

까만 눈동자 깜박 깜박 눈으로 인사하는 아가들의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아부 ~ ~

우리는 한살 두살 입니다. ♡♡♡

한걸음 걷기 시작하면 찬양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주신 은사 힘껏 표현해 보겠다며 다짐하고 뒤뚱거리는 걸음, 앞으로 앞으로 자신있게 나갑니다.

퀸즈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안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육부로 인도 하심 감사드리며, 특별히 김성국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 그 제자 됨으로 교사직분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셔서 이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교사가 되고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능력으로 직분 감당하도록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을때 가슴에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 아가가 아프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 가정에 평강 주시며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날을 구별하는 경건의 습관이 자라 경건의 능력으로 준비된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 쓰임 받은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주보를 보내며 연락을 드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안부를 전하는 선생님과 가정의 교제가 있습니다.

매 달 주어진 주제 – "믿음의 시작, 교회사랑, 기도, 부활, 가정, 말씀, 선교, 성장의 달"에 맞추어 찬양을 드리는 영아부 예배로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며 습득을 위해 3~4시간 연습에 집중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힘이 있고 살아있는 찬양으로 드리는 기쁨 가득함으로 임재 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연습에 연습 열정이 필요합니다 .

분반 공부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명옥전도사님 말씀의 다시한번 말씀체험으로 만들고 컬러링과 함께 나의 삶 속에 간증이 되는 말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걸어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주를 힘입어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 받는자 모두 은혜로 채워 주시길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원 세세토록 변치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믿음의 위를 바라보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다듬어가며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하며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의 통로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자녀들을 위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예수님 마음으로 그 날의 메세지를 분명히 하는 교사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온 교회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비젼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육부 되게하소서.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 사랑에 매여 "

초등부 / 이나 청년

뉴욕은 참 바쁜 도시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살면서 뉴저지로 출퇴근하는 큰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셔틀버스타고 저녁에는 지하철 두번 갈아 타서 퀸즈로 돌아옵니다. 퇴근을 하고 나면 교회로 출근도장 찍으러 갑니다. 공부모임, 큐티모임, 청년예배, 훈련모임, 토요일에는 투잡을 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저는 초등부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섬김까지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초등부교사로 섬기면서 제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어 갈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등부교사로 섬긴지도 벌써 6개월이 넘어갑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귀엽게 생긴, 남의 집 아이가 이쁜 딱 고정도였었습니다. 고집쎄고, 툭하면 울고, 엄청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부를 섬기면서, 저희반 아이들과의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대로 흡수하고, 교회에서 보면 반갑다고 어디에 있든지 달려와서 안기고,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준비가 없으면 절대 안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앞에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뇌가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드라마는 보면서 말씀을 읽지 않던 저는 퇴근하는 지하철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선교부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격려하는 사랑하는 지체도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많이 하다보면 자연히 신앙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던 저의 생각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섬김보다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섬김도 해야 하는 일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고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말씀을 못 읽을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로 계획한 날보다 밀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고 있을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도 못할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분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언제까지 뉴욕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뉴욕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춘기를 함께하는 엄마 교사

중등부 / 정소연 집사

전 현재 중등부에서 8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정소연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춘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중등부 7학년인 아들도 있습니다. 제가 퀸즈장로교회 고등학교 2학년때 와서 지금까지 초등부에서 그리고 영아부에서 섬겼었고 잠시 쉬면서 기도하던 중에 제작년에 중등부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 제가 정말 중등부에 온게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등부까진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도 선생님들의 말도 잘 듣는 편이지만 중등부 아이들은 사춘기가 시작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친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부모님들의 말은 잔소리로 듣고 흘려버릴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바라는게 많아지면서 명령조로 대할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적어도 제 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과의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되도록이면 자주 연락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반 아이들 엄마들과 기도제목도 나누고, 행사관련 소식도 전하고 아이들의 사진도 카톡으로 나누면서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학년 반엔 아직은 몇명 안되지만 제작년과 작년에 같이 했던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면서 사춘기의 반항적인 겉모습도 가끔 있지만, 말씀을 나눌때, 함께 예배드릴때, 공부할때, 성경퀴즈를 할때, 말씀 외우기 챌린지를 할때 얼마나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아이들이 참여하는지 감사드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매주 이 아이들을 대할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중등부 교사로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퀸즈장로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부터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가야할 방향을 배우게 된것처럼, 이 아이들도 중등부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수 있어서, 그리고 그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줄수 있어서,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좀 더 나은 교사로 또 중등부 자녀를 둔 엄마로 기도하면서 양육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때에, 성경공부를 준비할때에 또 어머님들께 연락할때에 제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전 부족하지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크셔서 제게 힘을 샘솟게 하시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게 해주셔서 전 중등부 교사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부에 가서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매 주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직분

고등부 / 김태훈 청년

주일날 학생들과의 만남은 보통 두렵습니다. 어떻게 매주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직분이 교사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학생들을 주일에 볼지, 어떻게 교사로서 먼저 바로 서

야 하는지, 계속 묻게 되는 직분이 교사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때로 그러한 모습에 힘도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 더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직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주일에 학생들을 보는 것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며 주중에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이러한 준비들을 하면서 성경공부를 준비 합니다. 때로 핑계 아닌 핑계로 한 주 가 너무 바빴다고 하면, 토요일 저녁에 급하게 성경공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교재가 있지만, 그렇게 준비한 성경공부로 주일날 학생들을 보면 뻔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뭔가 막힌 것 같이 형편없는. 아마도 교재로는 준비 되었어도 형편없는 한 주를 보냈던지, 아니면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지.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것은 가르칠 것을 외워버리기도 하고, 교재가 있을 경우 중요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결과는 눈에 바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성경공부를 가지고 주일날 학생들에게 전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리던지, 말씀을 갑자기 더 궁금해 한다던 지를 바란다면 예외 없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이 지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던지, 대학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든지, 좋은 교회와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을 만난다면, 그 때서야 그들의 신앙에 조금씩 열매를 맺는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고등부 까지는 뿌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때로는 정말 안 듣습니다), 계속 뿌리고 또 뿌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실 분도,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 전까지 계속 자라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계속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사 이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고등부 교사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뿌려지기 위해 교사들이 마음을 쓰고, 학생들과 친해지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어색한 마음을 열기 위해 어떻게든 다가가려 하고, 대화하려 하고, 그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보려 하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열린 마음에 교사로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교사들이 예배시간 전 에 일찍 온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과 얘기 하러 다가갑니다. 이미 얘기한 마음을 열기 위한 대화라고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고 그때쯤이 되어서야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을 아주 조금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학업에 힘쓰느라.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지켜진 믿음이 결국에 나중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어 보이고 장난꾸러기인 것만 같은 고등부 학생들 이지만, 이들 안에도 아픔이라고 하면 어른들에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냥 이들의 문제들을 어른들로서 우습게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무게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나이가 조금 어리고 생각이 조금 어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면 천국에서 같이 볼 우리 동생들 이니까요. ^^

– 우리집 가훈과 얽힌 이야기 –
" 경천애인 "

최효진 권사

한학자이시며, 서예가이셨던 할아버지께서 늘 즐겨 쓰시며 지인들에게 선물하셨던 글이 경천애인(敬 天愛人)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연초에 모이면 꼭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복있는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에 대해 늘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딱히 가훈으로 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가족 모두 당연히 '경천애인'을 집안의 가훈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생에 수많은 글을 쓰셨지만, 당신께서 제일 남기고 싶어하셨던 글이 '경천애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4세대가 한지붕밑에 살때, 매일 노할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리고 아침을 먹고나면, 할머니께서 코흘리개인 손자들을 데리고 찬송가를 가르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일찍 서재의 불을 밝히시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 집안의 골방에서 어김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던 할머니,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할머니의 섬김을 말씀하셔서 할머니의 베품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섬김의 삶을 그대로 물려 받으신 고모님은 80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몇번씩 타임스퀘어에서 관광을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전도를 하시며 이웃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접을 하면 꼭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평생을 뉴욕 YWCA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앞에 갈때까지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고모는 늘 닮고 싶은 분입니다.

가정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추수 감사절이나 성탄절 가족모임때는 예배후 헌금을 거둬서 지구 반대편의 이웃에게 염소나, 토끼나, 닭을 선물해서 몇 가정 정도를 도울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정 예배때나 기도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할수 있는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는 사람 이름을 모두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수록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눌수록 또 나눔을 받아들일수록 경천애인의 한걸음을 떼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녀앞에서 이웃을 대할때 존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서툴기는 해도 아이들도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경천애인을 자녀들에게도 가훈으로 남기고,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조정숙 집사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3명의 다른 모습을 가진 아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민중, 호중, 하중) 많은 분들이 3명의 아이들, 더 더욱 아들 셋을 키우는것이 힘들텐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한 것은 첫 아이를 키울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여 저의 눈 높이를 그 아이에게 적용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양육이 조금은 수월해 졌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자녀교육에 부지런한것 같았지만, 둘째가 영아부를 졸업할때 까지는 교회일, 회사일로 바쁜 날들이 많아서 정작 자녀교육은 우선순위 세번째 였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영아부에서 졸업시키며 영아부 교사의 자리로 부름받아 봉사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교육에 대해 교육받으며 양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영아부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귀로듣고 머리로 이해 하였지만, 여전히 저의 양육의 방식은 제 방식으로 포커스 맞추어 있었고, 그것이 잘못 되어 있는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여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것이 나의 몫이고, 그 아이는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하며, 그 영광을 오로지 주님만 받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순절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알기위해 많은 문을 두드려 행하게 하며, 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로서 부족함이 많은 저 인것을 알고 있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과 아이들 보다 못한 모습을 가진 자로써 어떻게 자녀교육을 잘 할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혼자는 불가능하기에 제가 의지하는 주님을 통하여 그 분에게 세 아이들을 맡기는 것으로 자녀양육을 하는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아부 부터 교회의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저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고, 친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희 부부의 약한 부분을 메꾸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시며, 자녀교육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들과 어머니께도 항상 물심양면 살피고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시절 굳건한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장영춘 목사님, 부모가 부모 되는법을 가르쳐 주시는 김성국목사님, 특별히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시며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명옥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영아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남매를 주님의 은혜로 키웠습니다

옥선자 권사

우리가족의 이민 생활은 1965년 어린 4남매와 함께 한국땅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옮기게 되면서부터 이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살, 6살, 8살, 10살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민을 생각했기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6식구가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순종하며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들이 나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날수 있었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 후에 자라나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남매를 내과, 소아과 의사로 약사로 키워 주셔서 선교지에서도 사역하며 쓰임 받는 자녀로 키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1995년 뉴욕에 오게 되어 1월1일 첫 주부터 퀸즈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남매를 키워주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대 지휘자들과 함께한 찬양대 부장단 8월 모임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퀸장 찬양대 부장단 모임(김수산 장로, 이광윤 집사, 정해성 집사, 신기만 집사, 정기영 집사, 최성수 집사)에서는 지난 7월 정기모임에서 8월 모임을 지휘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 지난 8월 20일 Alley Pond Park에서 지휘자들과 함께 하는 바베큐 파티 모임을 가졌다. 김수산 장로를 비롯 각 찬양대의 부장 집사 부부들과 윤원상 전도사(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각 찬양대의 지휘자 부부와 어린 자녀들, 총 2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부장단의 3시 준비모임과 지휘자를 포함한 전체 모임 5시로 예정되었던 이날 모임은 지휘자들을 잘 섬기겠다는 부장단의 열성으로 1시부터 모이기 시작, 7시간에 걸친 긴 바베큐 파티가 이어졌다. 최근 낙상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던 찬양대 부대장 이광윤 집사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하여 전원출석이란 기쁨을 더했다. 이날 모임을 통해 찬양대 부장단들은 더욱 폭을 넓혀가며 섬기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손요한 전도사

저는 중국 교육부 손요한 전도사입니다.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어린이 교육부를 섬긴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이기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 록 너무나 잘 적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사와 같은 어린이들과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희 중국교육부 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幼儿部 部长 郑丽芳老师

感谢主给我一个可以在中文堂教育部事奉的机会！加入教育部两个多月以来，由最初的不适应和不确定，到现在的得心应手，我知道这些都是神的恩典与带领。每周主日看着幼儿部小朋友们一点一滴的进步，我的内心充满了喜悦和对神的感激之情。虽然我们还有许多的功课要学，但是我相信凭借我们一起的祷告与努力，神必定会添加力量给我们的孙传道和老师们。我也相信我们中文堂的教育部一定会复兴起来，因为我们有耶和华神与我们同在！将荣耀归给我们的阿爸父！

幼儿部 江怡老师

弟兄姐妹，主内平安。我是江怡。中文堂幼儿部的Helen老师。感谢神，能够在主里一起来服侍孩子们是件蒙福的事。孩子们能够从小被真理来教导，在神的话语当中茁壮成长，是件非常蒙福的事。就像圣经里提到说：“教养孩童、使他走当行的道、就是到老他也不偏离。箴言 22:6 ”因为耶稣是我们的道路真理和生命。耶和华祝福满满！感恩！

幼儿部 黄显禧老师

中文教育部从成立到现在，虽然短短几个月时间， 但是真的是充满了神的恩典， 让我们的不足和担心都被神——充满，非常感谢神赐给我们这么一个充满爱的大家庭，我们的孙传道和各位老师， 还有喊着耶稣名字的小朋友们，所有的都是为了神的荣耀，感谢赞美主！

儿童部 戴美佳老师

大家好，我是中文堂的美佳。时间过的真快，转眼间我已经来到韩中长老教会快一年半了。感谢神的带领，让我在教会中参与了更多的事奉。现在我在中文堂的教育部事奉，这段时间事奉下来，我收获到了很多，不仅是与主内弟兄姐妹在事奉中建立起来的友谊和配搭还是灵命的长进，都因着事奉让我不断的成长。我相信，因着主的带领，我们的教育部一定会越来越好！

少年部 王希老师

孩子们从小就接触神的话语，行在真理中，是非常宝贵的。在这末后的世代，希望可以帮助这些孩子们不被这世界迷惑，成为讨神喜悦的人，塑造成为神手中可使用的器皿！

엄마의 초청 연수

안지연 선생

전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7월 17일(월), 경기도 용인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전 세계 48개국 132명의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막했다.
7박 8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토크콘서트, 한국어 교수법, 현장활용 교수법, 한국어 수업설계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일정으로 채워졌다.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의 안지연 선생님이 이 초청연수 세미나를 다녀왔다. 아이의 시선으로 본 엄마의 연수 후기를 전한다.[편집자 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나를 쥐어주고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받으러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엔 어떤 비장함이 묻어 있었어. 약간은 불안하기도 해 보였지.

그도 그럴것이 가뜩이나 말주변 없고 소심한 엄마가 7박 8일동안 세계 48개국에서 온 132명의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동거동락 해야하니 많이 떨리기도 하겠지. 밥도 혼자 뚝 떨어져 청승맞게 먹을려는지 몰라. 내 안 봐도 뻔해. 하지만 한편으론 연수가 열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내딛는 엄마의 발걸음엔 단단한 열정이 성큼성큼 보이기도 했지. 지난 6학기동안 엄마와 같이 공부했던 한 학생의 한글실력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머리를 쥐어 뜯으며 자신의 역량을 자책하던 차에 연수 초청을 받게 되었거든.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엄마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줄거라는 확신에 엄마는 이 기회를 매우 감사하게 여겼지.

매일 늦은 밤마다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와 전화에 대고 침을 튀기며 그날 그날의 일정을 얘기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전혀 지쳐보이지 않았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는 강의는 엄마의 좁은 지식과 마음을 넓게 펼쳐준다고 했지. 유명한 분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분야의 강사진들은 온 몸에 전율이 돋을만큼 자신만의 열정과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그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어른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고 했어. 더군다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로서의 우리 삶에서 한글의 소중함이 차츰 퇴색되는 게 아닌지. 그렇기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지. 언어만으로의 한국어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와 정서가 깃든 세종대왕의 한글을 잊지 않도록.

사람 사귀는 데 서툴은 엄마가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20년을 한글학교 교사로 재직증이신 한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어. 그 선생님은 20년 경력에 감탄하는 엄마에게 일침을 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대.

“세계 각지의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글을 전파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미국에서 가르치는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치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요. 교육은 아주 천천히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란걸요.”

시차 적응으로 연수에서 바리바리 싸 들고온 서류들을 모두 내팽긴 채, 지금도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엄마가 연수 전의 머리를 쥐어 뜯는 선생님이 아닌 연수 후의 새로운 선생님이길 간절히 바래.

"태준아, 우리 한국어 말고 한글 배우러 가자".

"제이 선생님, 내년에 연수 꼭 받고 오세요".

"꿀"
H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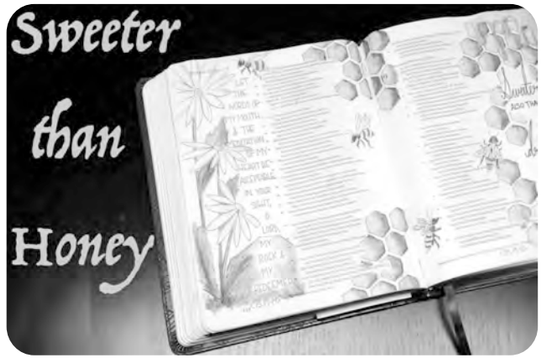
최성은 집사

Sung Eun Choi, PhD, R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Nutrition and Exercise Sciences
Queens College, CUNY

성경에 나타난 꿀

성경이 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꿀은 성경에서의 최고의 감미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잠 24:13)","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겔 16:13)",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 81:16)" 등등. 또한 성경에서는 꿀이 진귀한 물품, 매력적인 선물이나 극진한 대접 음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실로로 보내어 거기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보라고 부탁을 할 때 선지자에게 가져가는 선물로 꿀을 가져가게 한 기록이 있고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왕상 14:3),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진압을 위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대접한 음식중의 하나가 꿀이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삼하 17:29). 또다른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창 43:11)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대하 31:5)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음이여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겔 27:17)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아 5:1).



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노페트(흐르는 꿀 즉 송이꿀)와 데바시라는 단어로 언급되어 있다. 이 중 후자의 단어는 벌꿀뿐 아니라 과일즙도 가리킬 수 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멜리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야생의"를 의미하는 형용사 아그리오스와 함께 나올 경우 야생벌이 만든 꿀을 의미한다.

벌꿀 꿀벌은 나무나 바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한 경우에는 심지어 죽은 동물의 사체-아마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햇볕에 말라 버린 것-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꺼내 먹었던 것이 그 경우였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삿14:8-9). 벌꿀은 꽃과 과일에서 얻은 화밀(nectar)로 만들어진다. 화밀을 모아 벌집에 넣어 두는 과정에서, 벌의 몸에서 나온 특정한 화학 물질들이 첨가된다. 화밀에서는 물이 일부 증발해 나가고 그러한 화학 물질은 화밀을 꿀로 변화시킨다. 기력을 북돋아 주는 이 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공급하신 양식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데 나무가 거의 없는 그곳에서 이 백성은 "바위에서" 즉 벌들이 바위가 많은 지역에 지은 벌집에서 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 32:!3).

과일의 꿀 히브리어 데바시는 과일-무화과, 대추야자 등-의 주스 즉 즙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독자는 벌꿀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레위기 2:11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제단에 바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과일즙이었던 것 같다. 과일즙은 쉽게 발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벌꿀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구절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그 "꿀"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첫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꿀은 대부분 양봉 수확물이 아닌 들꿀이었으므로, 히스기야가 제사직을 지원하도록 백성을 고무하였을 때 첫 열매로 바쳐진 "꿀"은 틀림없이 과일의 주스 즉 즙이었을 것이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대하 31:5).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 3:4). 이 '석청'은 보통 바위틈에 벌이 만들어 놓은 벌집에 가득한 벌꿀을 연상하지만 세례요한이 먹은 석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세례요한이 있었던 광야에는 꽃이 없기에 벌도 없고 그래서 벌꿀도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세 종류의 꿀 (벌꿀, 종려나무꿀, 쥐엄나무꿀) 중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꿀은 종려나무꿀(시럽)인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곡식과 나무열매를 다 수확하지 않는 율법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3:22)에 의해 남겨진 종려나무 열매(대추야자)가 추수기가 지나 땅 바닥이나 돌 틈 사이에 떨어져 꿀처럼 달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이 먹은 석청이라는 것이다. 즉, 세례요한은 극빈자가 먹는 것들 곧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사역을 했다는 것이다.

예시적 용법 꿀의 치료 효과는 즐거움을 주는 말이나 지혜와 비교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꿀이 지닌 달콤함과 훌륭한 맛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 16:24)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 24:13-14)

꿀이 달콤하고 먹기에 좋다는 점은 성경 전체에서 예시적으로 사용된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겔 3:2-3)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 10:9-10)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술람미 소녀가 하는 말이 훌륭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꿀방울에 비유하기도 한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 4:11). 송이꿀도 자주 언급되는데, 이러한 꿀은 맛과 당도와 농도가 공기 중에 한동안 노출되어 있던 꿀보다 뛰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 19:9-10).

꿀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 25:16) 그처럼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비교되어 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잠 25:27). 잠언 5장에서는 "낯선 여자"가 자기의 매력과 매끄러운 말로 남자를 매료시켜 빠지게 할 수 있는 성적 부도덕의 유혹을 송이꿀의 달콤함을 들어 예시한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잠 5:3-5).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팔레스타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주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 땅이 벌들이 만드는 꿀뿐 아니라 과일즙도 풍부하게 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 3:8)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0:24)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 8:8)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 11:9)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 헤매었더니, 수5:6).

꿀의 성분과 효력

꿀의 주성분은 과당 (fructose)이고 미 농무부의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꿀 한 teaspoon (7g)에는 21칼로리가, 정제 백설

탕 한 teaspoon에는 16칼로리가 포함돼 있다. 영양학자들은 꿀이 설탕보다 약간 더 달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기력을 북돋아 주는 꿀의 특성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삼상 14:25-30).

그러나 설탕과 꿀 모두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꿀은 설탕보다 몸속에서 "조금 더 느리게" 분해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는 아니기에 설탕을 꿀로 대체하는 것의 영양적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과 오트밀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꿀에는 비타민 C,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들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지만 백설탕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 과학자들은 특별히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손상을 늦출 수 있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꿀이 이렇게 좋은 비타민, 미네랄들과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기에 피로회복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위에서 언급된 성경구절에서 보듯이 요나단이 피곤케 되었을 때 꿀 조금을 맛보고 눈이 밝게 된 것이 아닐까 (삼상 14:29).

하지만 이러한 꿀의 항산화력은 다른 식품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 의 것으로 밝혀져서 항산화력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제 백설탕보다는 꿀이 낫지만 모든 감미료 중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당밀 (molasses)은 꿀보다 더 많은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꿀의 1회 섭취량 당 항산화제가 적포도주, 블루베리, 호두 등 기타 항산화 식품보다 훨씬 적다고 말한다.

꿀이 건강에 미치는 또다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침 완화, 두피 건강, 그리고 상처치유 능력이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효과들은 오래전부터 실생활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상처치료제로 꿀을 사용한 것은 오래전부터다. '열대 생물학 아시아 퍼시픽 저널'에서는 기원전 2100년~2000년에 꿀을 약 혹은 연고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따가운 목을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로 꿀을 지정한 바 있고 목감기약에 꿀이 함유되어있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선의 감미료는?

건강의 목표가 다른 개개인에게 어느 한가지 감미료를 최고의 감미료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요즘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인공감미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Saccharine, Sucralose, Aspartame, Stevia등등) 모든 제품이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토록 받기 어려운 FDA허가를 받은 이들 인공감미료들의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고 기업의 로비로 인해 FDA허가가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칼로리가 0에 가까움에도 설탕의 몇백배의 당도를 지닌 이들 감미료들은 체중을 줄여야 하는 다이어트 환자나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필요한 감미료인 것이다. 하지만 체중조절이나 혈당 조절보다 위에서 언급한 꿀의 긍정적 건강 효능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꿀을 감미료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 것이다. 인공감미료의 뒷맛 (after taste)을 싫어하고 당뇨 환자가 아니며 설탕의 음식에 미치는 질감과 맛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탕이 최선의 감미료일 수 있겠다. 옥수수(corn) 생산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 부산물로 만들어져 거의 모든 판매 식품에 쓰여지고 있는 High Fructose Corn Syrup (HFCS)은 최근까지 미국 비만율 급등의 주범으로 몰려 홍역을 치르다 설탕보다 유의적으로 비만을 더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연구자료를 내보냄으로써 간신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HFCS는 설탕과 달리 갈변을 일으키지 않고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 같은 단맛을 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잇점으로 인해 음료업계에서 쓰여지는 감미료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단맛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건강에 아무 이득이 없는 설탕과 HFCS등 감미료를 요즘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서 이들 감미료의 섭취를 줄이자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꿀이 아무리 좋은 건강적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칼로리를 내며 혈당을 올리기에 꿀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잠 25:16, 27).

또한 미국 소아과학회는 꿀에 무서운 식중독인 유아보툴리누스증 (botulism)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함유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단맛에의 유혹이 있을때 꿀송이처럼 단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청년대학부 수련회

Who do you say that I am?

청년대학부 수련회가Sash Mochizuki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8/17(목)-19(토) 까지 열렸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하는지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크리스찬으로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Sash Mochizuki 목사님은 청년들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예배의 '대상' 과 예배드리는 '나'가 누구이며,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도움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동시에, 나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더욱 가까이 나아와 예배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Sash 목사님이 청년들을 한사람 한사람을 관심있게 눈여겨 봐두셨다가 개개인에게 필요한 기도와 축복을 해주심으로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소명과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한 청년들이 더욱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참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련회를 인도하신 Sash Mochizuki 목사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아가페 교회 소식

제 55기 전도폭발훈련
8월 29일(화) 오리엔테이션 후 9월 5일(화) 부터
13주의 과정으로 개강합니다. / 문의 : 오인수목사, 최원일집사

제 7기 제자훈련
9월 7일(목)부터 14주의 과정으로 개강합니다.

열린유아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 만 2세(8월 31일 기준) - 3세까지
2) 등록 : 본교회 교인 자녀
- 9월 첫주까지 각 부서를 통해 등록
- 외부 : 9월 5일(화) 오전 10시, 선착순 등록
3) 개강 : 9월 7일(목) 오전 10시, 유아부실
4) 문의 : 이명옥 전도사 / T. (646) 327-6438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 Pre-K 부터 12학년
2) 개강 : 9월 16일(토) 오전 9:30
3) 등록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오후 1:00(한국학교 사무실)
4) 문의 : 김흥덕 권사, 한국학교 T. (718) 886-4646

효도 잔치 안내
1) 주관 : 바울 선교회
2) 일시 : 9월 23일(토) 오전 11시, 교회
3) 대상 : 71세(1946년)이상 되신 분

송현규 집사(송소영 집사 4LI5) 께서 Clear Dental 병원을 개업하셨습니다. 133E 58th St. #409, New York, NY 10022
T. (212) 308-5550

이효성 집사(이은정 교우 4WS) 가정에서 7월 13일 득녀(유나) 하셨습니다.

이규성 집사(정유선 집사 4WH1) 가정에서 8월 1일 득녀(수아) 하셨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찬양집회

1) 주제 : **"하나님께 더 가까이"**
2) 날짜 : 9월 20일(수) - 9월 2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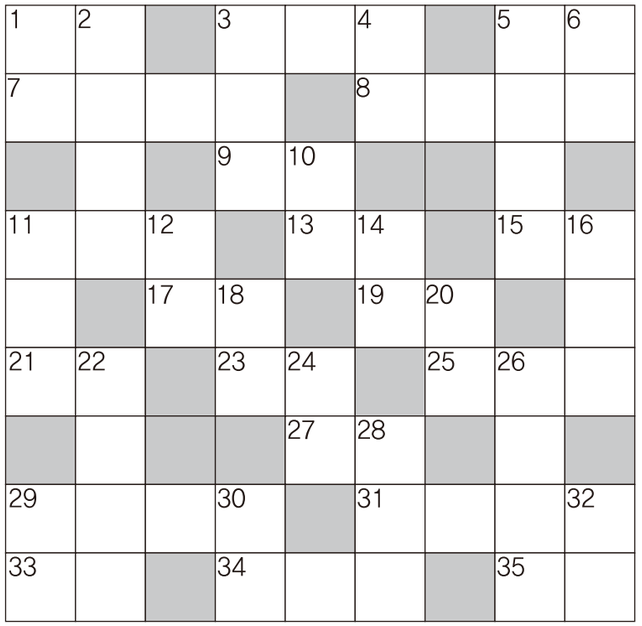
교회의 젊은이에 속하는 청년선교회부터 40대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은 자녀양육, 직장, 진로등의 수업이 많은 어려움으로 메마르기 쉬운 때입니다.
자칫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와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을 얻는 삶이 되어 가정과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경공부 하 GO! 퀴즈 풀 GO! 상품 받 GO!

응모자

아가페 402호 낱말 맞추기

출제 김기호 장로



401호 정답

아	볼	로	니	아		본	디	오
시	모		도		승		몬	
엘		사		유	전	병		불
	안	드	로	니	고		모	순
삭		락		테		지		종
개	혁		그	리	스	도	인	
오		코	리	안		자		그
	소		심		마		바	대
살	문	나		오	네	시	보	로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복사해서 친교실에 비치된 아가페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9월3일(주) ~ 9월20일(수)
3. **당첨자 발표** 정답자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10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낱말퀴즈 정답은 아가페 10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푸는 열쇠

1.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3.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온 큰 가족장임 (느 7:15)
5. 어린 아이 (룻 4:16)
7. 버들과의 낙엽교목 (겔 17:5)
8. 바울이 1,2,3 차 전도여행시에 매번 가서 전도하였다 (행 16:6)
9. 가인의 장자이다 (창 4:17)
11. 미국의 현 대통령 (상식)
13. 야벳의 다섯째 아들 (대상 1:5)
15. 정하지 않은 일시적인 기간 (국어)
17. 소아시아 서남근해 중에 있는 작은 섬 (행21:1)
19. 길을 닦는 일 (관주성경 시 78:50)
21. 소아시아의 한 도시니 북은 흑해요 남은 갈라디아이다 (행 2:9)
23. 늦가을에 붉게 물든 나뭇잎 (겔31:8)
25. 동물의 두부 (국어)
27. 하나님 말씀을 엮은 책 (상식)
29. 딸을 낳은 경사 (고사성어)
31. 어떤 심적 내용이 특별히 명확하게 의식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 (국어)
33. 죽은 뒤 (국어)
34. 집, 성, 다리 따위를 세우는 사람 (왕상5:18)
35. 큰 바다 (민34:6)

세로 푸는 열쇠

1. 한 군의 행정을 맡아 보는 으뜸 관직 (명)
2. 담임 목사님이 주보 뒷면에 싣는 짧은 글
3. 찬송가 183장 첫머리 글자
4.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 나단의 아들 (삼하23:36)
5. 유다지파에 있는 성읍 (수15:36)
6.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 (삼하 2:24)
10. 콩과의 일년생 재배식물 (삼하17:28)
11. 김기호 장로가 부는 악기 (음악)
12. 아마(아마추어) 의 반대말 (명)
14. 누워있을 때 발을 뻗는 것 (룻3:4)
16. 레위의 증손이요 고라의 형제이다 (출6:21)
18.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곳인데 요셉이 부친 야곱의 명령을 받들고 형들의 안부를 알려고 이곳에 이르렀다가 형들에게 팔리움을 받아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창 37: 17–36)
20. 아호아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월반의 반장이었다(대상 27:4)
22. 엘리에셀의 부친 (대하 20:37)
24. 넉넉하고 많음 (창 27:28)
26. 말씀하시기를 (창 1:3)
28. 경주하는 사람 (전 9:11)
29. 농민이 곡식을 가꾸는 일 (창 4:2)
30.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신 33:8)
32.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사42:10)

401호 정답자 길길자권사, 이춘자권사, 임광순권사, 신정희권사, 심성희청년

정답자 추첨은 이정훈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WELCOME
2017년 7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박상섭 4-F6-2 바 울
안웅성 3-FM3-2 바 울
정은지 3-FM3-2 브리스가
안민준 3-FM3-2 중등부
김성빈 3-FM3-2 디모데
김해월 3-FM3-2 에스더
오경애 12-F12-1 마리아
김훈 2-F12-1 청년선교부
장미자 2-F12-1 루디아
안병훈 4-F1-1 요한
박지수 1-Y-1 청년대학부
이미란 2-F12-2 뵈뵈
김현우 2-F12-2 유아부
이인해 4-Y-2 청년선교부
이근일 4-Y-1 청년대학부
박인걸 4-Y-2 청년선교부
윤용학 3-Y-2 청년선교부
홍준표 3-Y-2 청년선교부
민국희 3-Y-2 청년대학부
정소망 4-Y-1 청년대학부
김용선 4-WH2-1 디모데
김혜림, 김예슬 4-WH2-1 유아부,영아부
김신애 4-WH2-1 에스더
허화자 2-F16-3 마르다
김순금 2-F16-3 루디아

Chinese Ministry

叶金钗 吴承 姜美英 宋美丽 廖德明 张丽莎 曹红卫 权赫宇 李妍昊
李爱凤 李玲 李美子 欧方锦 汪丽萍 潘丽华 王丽卿 王彩媚 王耀华
程帅 艾辉 蒋大卫 蒋清水 蔡万忠 连英 金明俊 陈奇为 陈娟
陈薇 陈飞霞 高锦容

새가족환영회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김미견 권사님의 여름철 입 맛을 돋구는 '냉모밀 샐러드'

교회 행사 때나 구역 예배 때 맛깔스럽게 선보이시는 김미견 권사님의 맛난 '냉모밀 샐러드'를 소개합니다.

1. 소스를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차게 보관한다.
2. 소스는 간장, 식초, 설탕을 각 1컵씩 참기름, 올리브오일, 굴소스를 각 반컵씩 섞는다. (기호에 따라 와사비와 고추가루를 준비한다)
3. 깨끗이 씻어 준비한 오이는 돌려 깎기를 한 후 피망과 함께 2인치로 채 썰고, 치커리도 2인치로 자른다.
4. 딸기, 체리토마토, 올리브는 반으로 가르고 키위와 파인애플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5. 모밀국수는 삶은 후 얼음물에 잘 씻어 전분 기를 제거하고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6. 모밀국수를 볼에 담고 준비한 야채와 과일을 넣은 후 소스를 부어가며 버무려 간을 맞춘다. (과일은 기호에 따라 바꿔줘도 좋다)

김미견 권사님